

자연보존



Nature Conservation

제 53 호

1986. 3

特輯：우리나라 自然保存의 過去와 未來



사단법인 한국자연보존협회 발행

자 연 보 호 헌 장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속의 온갖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원이다.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원천으로서 오묘한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을 금수강산으로 가꾸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향기높은 민족문화를 창조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에 따른 공기의 오염, 물의 오탁, 녹지의 황폐와 인간의 무분별한 채손 등으로 자연의 평형이 상실되어 생활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인간과 모든 생물의 생존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공해요인을 배제함으로써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유지하는데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 땅을 보다 더 아름답고 쓸모있는 낙원으로 만들어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자연보호헌장을 제정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1.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국가나 공공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의무다.
2.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 자원은 인류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3. 자연보호는 가정, 학교,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을 통하여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 자연의 보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5. 온갖 오물과 폐기물과 약물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자연의 오염과 파괴는 방지되어야 한다.
6. 오손되고 파괴된 자연은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7. 국민 각자가 생활 주변부터 깨끗이 하고 전 국토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

1978년 10월 5 일

〈論說〉 우리나라 自然保存의 過去와 未來

“自然保存” 20餘年

姜 永 善
本 協 會 會 長

내가 1984년 3월 本協會 會長으로 취임한 것이 었그제 같은데 세월이 如流하여 2년이 벌써 지나고 금년 2월 말로 任期가 끝나게 되었다. 회장 취임 당시에는 여러가지 抱負도 있었지만 임기 2년이 일을 해 나가는데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고, 또 주변의 與件이 우리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아서 당초에 생각했던 바를 충분히 이룩하지 못하고 임기를 끝내게 되어 미안한 점이 많다. 금번 “자연보존” 제53호에 특집으로 “우리나라 자연보존의 과거와 미래”를 실림에 있어 이 사람이 본협회 창립 때(1963년)부터 자연보존 사업에 관여했던 관계로 우리나라에 있어 20여년간 자연보존 사업을 추진해 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게 되었다.

예전에는 우리 나라를 錦繡江山이라고 불러 왔고, 또 외국 사람들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The land of morning calm)라고 해서 아름다운 자연을 지닌 平和로운 나라로 전해왔다. 따라서, 내가 어렸을 때 즉, 지금으로부터 50~60년 전만 해도 산에 나무가 울창했고 각종 야생동물이 풍부하였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日帝時代 말엽에서 解放 후, 6.25動亂을 거쳐 1960년대에 이르는 동안에 우리 나라의 모든 자연은 옛 모습을 찾아 볼 길 없이 계속해서 荒廢 一路를 걷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國立公園에 관한 국제적인 전문가인 미국의 W.J. 하아트, IUCN의 부총재이며 미국 학술원 태평양 과학위원회 위원장인 H. 쿨릿쥐 등의

충언도 있고 해서 1963년 12월 뜻을 같이하는 학자 20여명이 모여 한국 자연 및 자연자원 보존 학술조사 위원회의 창립총회를 갖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韓國自然保存協會의 모체가 되며,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의 일이다. 우리 나라 자연의 황폐화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금수강산의 아름다운 옛 모습을 조속한 시일 내에 되찾아 보자는 우리들의 意志의 표현이라고도 하겠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자연보호운동(또는 사업)을 추진해 온 歷史를 다음과 같이 세가지 시기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 그 중 첫 시기는 1962년 까지이며, 자연보존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전혀 無防備 상태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학자들 간에 자연보존(Conservation)이란 말조차도 껍이나 생소했던 시절이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우리 나라의 자연이 현저하게 황폐해 가는 것을 보고 한심한 노릇이라고 개탄하는 사람이 조금씩 늘게 되었다.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다녀올 때 비행기의 창문을 통해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風景이 우리나라의 벌거숭이 산과 일본이나 미국의 삼림이 우거진 산천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비교가 되어 한심하다고 느껴지기는 했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文化財保護法이 재정되어 文化財委員會가 있었으며, 여러 종류의 天然記念物이 지정되고, 또 설악산, 한라산 및 홍도 등이 天然保護區域으로 지정되어서 어느 정도 자연의 훼손과 황폐를 막는데 도

움이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둘째 시기는 1973년까지의 10년간이다. 자연보존의 입장에서 보면 黎明期라고도 할 수 있다. 人口는 큰 비율(2.8%)로 증가했으며, 아직도 정부나 국민은 빈곤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시기이어서 자연보존이나 환경보전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자연보존에 관한 민간단체가 생겼다고는 하나 누구 하나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다. 환경오염에 관한 연구논문을 신문지상에 발표한 대학교수가 학원에서 추방되는 사례까지 일어났다. 그와같은 연구 결과가 모처럼 성과를 올리고 있는 産業發展에 制動을 거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우에서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협회는 자체 예산이 全無한 상태에서 우리 나라 문화재관리국과 미국의 연구기관(스미소니안 연구소)등의 지원을 받아 자연보존에 관한 조사 연구를 꾸준히 계속해 왔다. 1964년에는 한라산, 홍도 및 설악산 일대의 종합학술조사를 행하였다. 문화재위원회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한 3개 지역에 대한 학술조사인 것이다. 1966~1968년에는 본 협회가 미국 스미소니안 연구소와 공동으로 우리 나라 休戰線(DMZ) 인접지역에 대한 生物學的인 연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13개 분야에 걸쳐 30여명의 학자(연구원 및 연구조원)들이 동원되었다. 약 12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이 금액 전부를 미국측(스미소니안 연구소)에서 부담하였고, 연구인원은 주로 한국 측(한국자연보존위원회)에서 동원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우선 2년간 本研究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로 하고, 이 기초연구 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계속해서 5년에 걸친 본연구에 들어 가기로 했다. DMZ란 우리 나라의 最前方이며 休戰境界線이기도 하기에 그 지역에 출입하는 수속도 복잡하고, 상당한 위험도 항상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약 2년에 걸친 연구조사가 별 사고 없이 추진되었으며, 또 이와 병행을

해서 본연구 5개년계획의 준비가 추진되었으며 실제로 30여 분야에 걸친 연구계획서가 작성되어 스미소니안 연구소 측과 합의를 보았다. 이러던 차에 1968년 1월 21일에 이북에서 무장공비 30여명이 서울로 침투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바람에 미국 측은 크게 놀라시 군사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공동연구계획을 중단하자고 나왔다. 이렇게 해서 DMZ부근에 대한 생물학적인 한미공동연구는 예비조사만 끝 마치고 중단되고 말았다.

그 뒤 본 협회는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의 委託研究로 1970년에는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와 소흑산도 일대 조사연구를 추진했고, 같은 해에 우리 나라의 자연을 소개하는 “韓國의 自然”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았다. 또, 1971년에는 역시 문화재관리국의 지원을 받아 울릉도, 오대산, 소금강 일대, 그리고 1972년에는 무주 구천동, 해남 대둔산, 휴전선(DMZ) 인접지역 일대의 연구조사를 수행했다. 다음 1973년에는 우리 나라 전체의 名勝地에 대한 제 1차 종합연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협회는 1963년 12월 창립 당시에는 한국자연 및 자연자원보존 학술조사위원회(임의단체)라는 긴 이름으로 출발을 했으나 그 뒤 1965년 8월에 韓國自然保存委員會(The - Korean Commiss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라는 이름으로 고쳤다. 이듬해인 1966년에는 본 협회가 국제기구인 國際自然保存聯盟(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에 위의 명칭(KCCN)으로 가입을 했다. 다시, 1969년 5월에 본 협회는 문화공보부 산하 社團法人체로 승인을 받을 때 회의 명칭을 한국자연보존연구회라고 개칭하게 되었다. 그러나 영자 이름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 기간중 1963~1965년의 2년간은 故 趙福成 박사가, 그리고 1965~1974년에 걸친 약 8

년간은 이 사람이 회장을 맡았다.

다음 세째 시기는 1974년 2월에서 오늘에 이르는 10여년간이며 자연보존사업의 발전 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본 협회는 故 朴正熙 대통령의 특별 고려로 2억원의 基金을 얻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우리 나라 은행金利가 높 서 그 이자만으로도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본 협회는 1974년 2월 韓國自然保存協會로 개칭하였고, 1975년에는 9개 市道支部를 결성하여 名実相符한 협회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977년 10월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자연보호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되면서 정부에는 國務總理를 위원장으로 하는 自然保護委員會가 설치되고, 민간에는 중앙의 自然保護中央協議會를 비롯하여 시, 도, 군, 구의 자연보호협의회와 다시 지역별, 직능별, 직장별, 학교별 자연보호회가 구성되어 체계있는 자연보호 운동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다음, 1978년 10월 5일에는 각계 각층의 대표 인사들이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 모여 自然保護憲章을 선포했다.

여기서 자연보호의 성격을 밝혀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연보호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자연보호 1) 자연정화(淨化)

2) 자연보존(保存), 문화재보호, 국립공원

3) 환경보전(保全)

1977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범국민적으로 추진해 온 소위 자연보호 운동은 정확히 말해서 自然淨化 運動인 것이다. 물론, 자연보정화 운동은 자연보호의 제1차적인 사업이며, 자연보호의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현실로 보아 어느 한개의 민간단체로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본 협회에서도 창립 이래 이 운동을 전개하려고 노력을 해 왔지만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1977년 이래 정부가 주도가

되어 자연보호협의회, 자연보호회 등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제까지 크게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이와같은 사업은 오랜 세월을 두고 꾸준히 계속해야만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은 사업 추진에는 弘報와 啓蒙을 펴 나가야 하며 더 나가 자연보호에 관한 교육도 필요하다.

둘째로, 自然保存은 주로 자연보호에 관한 연구 조사를 하는 일이다. 보존해야 할 자연을 발굴해서 조사하며 그 가치성을 판단한다. 살아져 가는 자연 및 자연자원의 실태를 조사 연구하며 이에 대한 防備策 강구하여 때로는 정부에 건의하며, 또 개발과 보존의 균형이 깨어질 우려가 생길 경우에는 보존의 입장에 서서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국제기구와 긴밀하게 제휴하여 국제적으로 뒤떨어지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이미 살아져 간 귀중한 자연이나 자연자원을 復元하는 것도 이 분야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國立公園 내의 자연의 보존, 문화재의 보존 문제도 이 분야와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일들이다.

다음, 環境保全 문제인데 각종 汚染을 방지해서 快適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며,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환경청에서 이를 관장하고 있다.

본 협회에서는 창립 이래 학술적인 사업과 홍보 운동을 위하여 양면으로 활동하던 것을 1977년 이후는 이를 止揚하고, 弘報的인 活動은 자연보호중앙협의회로 넘기고 본 협회는 상기한 학술적인 연구사업에만 전념하기로 했다.

1974년 2월 본협회 회장으로 피선된 李德鳳 박사는 1982년 2월까지 8년간 회를 이끌어 왔으며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다. 그 뒤 1982년 3월~1984년 2월(2년)까지는 金遵敏 박사, 1984년 3월~1986년 2월(2년)까지는 이 사람이 회장직을 맡아 왔으

自然保存은 주로 자연보호에 관한 연구조사를 하는 일이다. 보존해야 할 자연을 발굴해서 조사하며, 또 개발과 보존의 균형이 깨어질 우려가 생길 경우에는 보존의 입장에 서서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며, 이번에 새로 피선된 金昌煥 회장에게 바통을 넘기려고 하고 있다.

본 협회의 사무실은 창립 후 1974년 7월까지는 동숭동 서울대학교 동물학과에 있었으나 그 뒤 청량리 홍릉 입암시험장 구내로 옮겨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4년 이후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본 협회 기금의 열매와 내부부에서 매년 지원해주는 예산을 가지고, 전과는 달리 비교적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1968년부터 본 협회가 발간을 시작해서 년 4 회(계간) 발행해 온 협회지 “자연보존”은 현재 53호에 달하여, 요즘은 학술조사 연구결과가 많이 실리고 있다. 본 협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연구 조사는 동식물 生態에 관한 학술조사와 자연 및 자연자원의 保存管理를 위한 학술연구로 구분되는데 꾸준히 계속해 왔으며 보고서를 그때 그때 단행본으로 발간해 왔는데, 현재 자연보존 연구보고서가 제 7 집, 종합학술조사보고서가 제23호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모두 우리 협회의 귀중한 업적으로 영구히 남을 것이다.

1974년 5월 28일 그 당시 국회의원이던 金濟源씨가 기증한 담수치어 10만여 마리를 강원도 소양호에 放養을 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본 협회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매년 소양호를 비롯해서 경기도 팔당, 경북 안동호 등 여러 호수에 많은 담수치어를 방양해 왔다.

日本에서는 작년(1985) 5월, 日本自然保護協會 30年史라는 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1951년 18명의 發起人에 의하여 日本自保會가 창립 되었으며, 그 후 10년이

지난, 1960년에 財団法人으로 조직을 강화했다고 한다. 일본과 비교한다면 자연보호에 관해 우리 나라가 그리 뒤떨어진 것은 아니며, 불과 10여년의 차이가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질적인, 또는 양적인 차이를 생각할 때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 격차는 더 한층 벌어진 것으로 생각 된다.

돌이켜 생각해 보건데 우리 나라의 자연보호 운동은 1977~1978년경 불이 붙기 시작한 것이 그 뒤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요즈음 와서는 불이 꺼져가는 느낌마저 든다. 자연보호에 관해 최고의 정책을 다루게 되어 있는 자연보호위원회(국무총리 주재)는 내가 본 협회 회장으로 있던 2 년간에 단 1 번 밖에 열리지 않았는데 그나마 거기서 논의 된문제가 정책에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다. 좀 심하게 評한다면 그회는 몇해에 한 번 정도 열려서 위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눌 정도의 것이 아니었는가 느껴진다. 또 1977년 이래 내무부에서 준비해 온 自然保護 基本法 초안은 그 뒤 한 번 국무위원회에 올린 일이 있을 후 그 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자연정화 운동은 어느 정도 계속될지 모르나, 자연보존 사업은 전혀 발전할 수 없다. 자연보호 기본법이 제정되고 상기한 자연보호위원회가 活性化 되어야 예산도 상응하게 책정이 될 것이고 연구 조사를 전담하는 연구센터라도 한 군데 이루어지게 되어 자연보존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이만큼 이끌어 온 자연보호 사업을 龍頭蛇尾格으로 만들지 말고 차체에 다시 한번 속고해 주기를 바란다. □

〈論說〉 우리나라 自然保存의 過去와 未來

自然保護 運動의 實績과 問題點

金 熏 洙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

며칠 전에 나는 개구리 요리를 만드는 음식점과 그 재료가 되는 개구리를 溪流에서 어른 아이들 할 것 없이 마구 잡는 광경, 그리고 “서울 사람들이 많이 자가용차를 타고 와서 먹지요”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음식점 아주머니의 얼굴 모습이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되는 것을 시청한 적이 있다. 나는 “먹는 사람들, 음식점 사람들, 잡는 사람들 모두 한심하구나, 自然保護 汎國民 運動을 시작하지도 10년째나 되었는데 이래서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다. 바로, 어제는 모 단체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 비닐주머니 등 쓰레기를 줍는 광경을 방영하면서 “…… 자연보호 운동을 했다”고 보도했다. 쓰레기를 줍는 일은 清掃이며, 청소는 自然淨化의 일면이니 소극적인 자연보호 활동의 한가지이기는 하다. 그러나 흔히 있는 이런 표현이, 쓰레기를 줍는 일이 자연보호의 전부인 것 같은 인상을 주게하는 요인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개구리를 함부로 잡는 일이 자연보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작년 초겨울에는 서울을 지나 는 漢江이 깨끗해져서 철새들이 많이 찾아왔다는 보도를 시청한 적이 있다. 한강물이 예전보다 깨끗해진 것은 심히 오염된 下水가 淸溪川과 中浪川의 下水處理場에서 人工的으로 淨化된 때문이니, 이것쯤은 참언하였더라면 좋을 뻔 했다. 인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水質을 인간이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義務이며 이것도 자연보호의 중요한 면이기 때문이다.

사실은 自然保護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어서 그 동안의 우리 자연보호 운동도 쓰레기를 줍는 일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해 왔으며 업적도 많다. 이제 우리의 자연보호 운동의 발자취를 뒤돌아 보고 그 功績과 問題點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자연보호의 참된 뜻과 내용을 되새겨 볼 필요도 있겠다.

自然保護 運動의 先驅 活動

이 우리 강토에서 자연보호에 관련된 施策과 活動이 시작된 것은 적어도 新羅時代로 거슬러 올라간다. 天然記念物의 指定 管理도 자연보호 활동의 한가지인데 이것은 이미 1945년 이전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의미에서 이 운동이 시작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1948년에 발족된 國際自然保存聯盟과 연계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自然保護에 뜻을 같이 하는 人士들이 1963년 12월 한 자리에 모여 韓國自然 및 自然資源 保存 學術調查委員會를 창립하였다. 이것은 韓國自然保存委員會(1965), 사단법인 韓國自然保存研究會(1969, 文化公報部 承認)를 거쳐 사단법인 韓國自然保存協會(1974, 감독기관은 여전히 文化公報部)로 발전하였다. 이 협회는 1976년 7월부터 그 감독기관이 內務部 山林廳으로 바뀌었다가 1980년 12월 12일자로 內務部長官 직속의 사단법인체로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特記할 것은 현재

에는 總裁가 없지만 이 협회의 초대(1974~1975) 총재는 故 朴 正熙 大統領의 令夫人 陸英修 女史였고, 1975, 1977년에는 朴大統領의 配慮로 2 억원의 基金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民間團體는 1968년 12월부터「자연보존」을 발행하여 자연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성격과 실제 내용을 널리 알려왔고, 비교적 잘 보존된 자연지구에 대한 綜合學術調査를 하여 그 결과를 報告書로 출간하였으니 1977년까지만 해도 小黒山島(1970), 洛東江 철새渡來地(1970), 鬱陵島(1972), 五台山 및 小金剛(1972), 茂朱九千洞(1973), 海南 大屯山(1973), 非武裝地帶隣接地域(1975), 內藏山一帶(1974), 雉岳山(1976), 佛影寺溪谷(1976), 曹溪山一帶(1977)에 대한 것들이 있었다. 그동안 자연보호에 관한 강연회와 세미나도 가졌다.

이 단체의 이와 같은 活動이 자연보호 사상을 고취 보급함으로써 이 운동의 다음 단계를 촉진하였다.

自然保護의 汎國民運動化

마침내 1977년에 이르러 故 朴大統領은 자연보호 운동을 汎國民運動으로 展開할 것을 제창하게 되었다. 그분의 지시에 따라 1977년 10월에 정부기구로서 自然保護委員會(위원장 국무총리, 실무 내무부)와 민간기구로서 사단법인 自然保護中央協議會가 구성되었고 후자의 산하에 시·도, 시·군·구 지방협의회도 구성되었다. 이해 11월 5일에는 自然保護 汎國民運動 蹶起大會가 전국 市道市郡 自然保護協議會 주최로 176개소에서 1,500여 기관이 참여 총 100여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일제히 열렸다. 이날 朴大統領은 致辭를 통하여 이 범국민운동의 전개가 뜻깊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필두로 자연보호의 필요성을 피력한 다음 「우리 江山, 우리 自然을

내 몸같이 아끼고 保護하는 精神은 바로 國土를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는 精神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愛國心입니다」라고 자연보호의 정신이 바로 애국심임을 설파하셨고, 「...自然保護와 治山綠化에 한층 拍車를 가해 나가야」할 것도 당부하셨고, 「오늘 이 時刻을 기해서 농촌과 도시, 男女老少의 구별 없이 우리 國民 모두가 自然保護 運動에 自發的으로 參與해 줄 것」을 提議도 하셨다. 또한, 「外國 손님들에게 깨끗하게 整頓되고 알뜰하게 가꾸어진 우리 江山을 보이는 일은...國威를 宣揚하는 길」이요, 우리 모두가 「自然保護를 꾸준히 生活化해 나간다면 우리는 高度産業國家를 建設하면서도 公害汚染 要因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自然環境 속에서 풍요하고 건강한 國民生活을 누리게 되리라」고도 예견하였다. 다음 해인 1978년 10월 5일에는 朴大統領 임석하에 그동안 99명의 제정위원이 애써 기초한 自然保護憲章이 宣布되었다. 이 헌장에 7 항목의 실천 사항이 제시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리하여 自然保護 運動은 政府次元 先導의 汎國民運動으로 전개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자연보호 운동사상 비약적이고도 획기적인 발전임에 틀림 없으며, 그 당시의 國家 元首의 직접적이고도 至大한 關心下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크게 注目된다.

自然保護委員會는 長官級으로 구성되며 自然保護 運動에 관한 重要 政策을 審議 調整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심의에 앞서 그 밑의 自然保護實務委員會(위원장 內務部次官補, 위원 各 部處 局長級)가 그 案件들을 검토 조정한다. 자연보호의 主務課는 內務部の 自然保護課이며 이것은 市·道 새마을 指導課(自然保護系) - 市·郡 새마을課로 이어진다. 여기서 부처간의 조정기구가 있음을 본다. 상기한 自然保護中央協議會 산하의 地方協議會(총 239개소) 밑에는 最一線 實踐組織인

自然保護會(地域·職能團體·保護對象·學校)가 있다(1978년 : 보호회 60,969개, 회원수 10,005천명; 1984년 : 보호회 72,554개, 회원수 13,625천명). 이미 언급한 또 하나의 민간기구인 韓國自然保存協會는 산하에 市道支部를 가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自然保護 運動의 推進 體系는 政府의 自然保護委員會 계통과 內務部를 감독기관으로 하는 민간기구인 韓國自然保存協會와 自然保護中央協議會의 계통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一言해 두어야 할 것은 韓國自然保存協會와 自然保護中央協議會의 차이점이다. 왜냐하면 이 2가지가 어떻게 다르냐고 묻는 사람들이 간혹 있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 2단체를 합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기에 2단체가 모두 內務部가 그 감독기관이고 전자는 「자연보존」을, 후자는 「自然保護」라는 명칭이 서로 비슷한 기관지를 내고 있으니, 그러나, 이 두 단체는 명칭이 명확하게 다를 뿐만이 아니라 창립의 역사적 배경이 서로 다르고,

전자가 自然保存을 위한 自然資源의 調查研究를, 후자가 自然保護 國民運動 推進을 主業務로 하고 있으며, 「자연보존」이 학술적인 데 대하여 「自然保護」는 계몽적이라는 등 그 성질이 매우 다르다.

또한, 여기서 特記해야 할 것은 自然保護 運動의 法的 根據이다.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自然保護委員會는 「자연보호위원회 규정」[제정 : 1977. 11. 9 (대통령령 제 8738호)]에 따라 구성되었다. 한편, 自然保護業務關係法令集(1980년 12월 31일 현재)에 따르면 自然保護關係法令은 內務部 등 10개 部處 所管 法令이 51種이나 있다. 自然保護運動業務資料集(內務部, 1985)의 「自然保護關係法令」에는 다음 표와 같이 15가지의 關聯法令과 각각의 主要 內容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관련 법령은 많으나 이것들보다 上位에 있어야 할 自然保護基本法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상기한 자연보호 추진체계 이외에도 自然保護 有關團體로서 韓國資源再生公社·韓國國立公園協會·韓國野生動物保護協會·韓國

自然保護 關係法令

關 聯 法 令	主 要 內 用
○ 環境保全法('77. 12. 31)	環境保全, 野生動·植物保護, 事業者 責任
○ 文化財 保護法	史蹟, 名勝, 天然記念物 指定保護
○ 汚物 清掃法	汚物收去 및 投棄 防止
○ 自然 公園法	公園區域指定 및 保護管理
○ 山 林 法	山林保護 및 被害豫防 治山綠化
○ 鳥獸保護 및 狩獵에 관한 法律	野生動·植物 保護 및 保護區域 指定
○ 國土建設 綜合計劃法	土地, 물, 其他 天然資源의 利用開發 및 保全
○ 國土利用 管理法	自然資源利用地區 指定 및 保護管理
○ 水產業法	水産資源의 增殖保護 및 水質保全
○ 都市計劃法	都市開發 및 利用 管理
○ 水 道 法	水質保全 및 汚染 防止
○ 輕犯罪處罰法	自然毀損 및 秩序事犯 啓導團束
○ 海洋汚染防止法	海洋에서의 廢棄物 배출 團束 및 保全
○ 河 川 法	河川의 保全 및 有毒物 投棄防止(水質保全) 土石採取 等
○ 觀光事業法	國民觀光地 指定 管理

洞窟保存協會·韓國靑少年聯盟 등이 있고, 其他 자연보호와 밀접한 自生團體로서 韓國山岳會·大韓山岳聯盟·全國낚사회聯合·韓國綠色會·大韓鳥類會·韓國鳥類會 등이 있다(自然保護運動 業務資料集에 의함). 이와 같은 민간단체들은 자연보호 운동 및 활동의 汎國民化에 앞장을 서고 있는 바 그 구실이 크다.

自然保護 運動의 實績과 問題點

위에서는 자연보호 운동의 기반 조성을 주로 다루었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인 활동실적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앞서, 「自然保護」의 뜻을 되새겨 보자. 「자연보호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에는 “자연보호”를 “자연을 인위적 오염과 파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손괴된 자연경관을 복구·정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의 전반은 자연을 오염시키거나 파손하는 것을 막는다는 뜻이 되므로 自然保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후반은 이미 사람에게 의해 파괴되었거나 더럽혀진 자연을 사람이 원상으로 되돌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매우 外形의이어서 이것을 위한 활동이나 결과는 눈에 잘 뜨인다.

위의 정의에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지만 廣義의 自然保護는 自然資源의 合理的利用, 다시말해서 自然을 利用하면서 保護하자는 생각도 들어 있다. 여기서 開發과 保存의 상호관계가 문제이다. 「世界自然保存戰略」(國際自然保存聯盟이 1980년에 作成)에 따르면 「開發이란 人類의 必要를 充足시키고 人類의 生活을 質的으로 改善하기 위한 生物圈의 變形이며 生物 및 無生物 資源의 利用을 뜻하고, 保存이란 「後世代의 必要에 부응할 潛在力을 유지하면서 후세대에 최대의 持續的 利益을 産出하기 위한 人間의 生物圈利用에 대한 管理를 뜻한다. 따라서 保存은 自然環

境의 保存을 포함한(生物圈의)적극적인 維持, 持續的 利用, 回復 및 增進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必須의인 生態學的 過程과 生物扶養體制의 維持」와 「遺傳的 多樣性的 保存」을 하면서 「生態系와 種의 持續的 利用」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생태학적인 고려 없이 이루어지는 開發은 資源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최대한으로 이용할 가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손상을 초래함으로써 經濟的 損傷을 가져오기 쉽다.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가장 效果的인 方法은 政策樹立의 初期段階에서부터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過程에서 保存과 開發을 統合시키는 것이다.」 즉, 개발과 보존은 分離하여 다룰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內務部에서는 매년 「自然保護運動 推進指針」을 마련하고 이것을 추진해 왔는 바 그 主要 推進 實績은 이미 언급한 바 있는 「自然保護運動業務資料集」(內務部, 1985)에서 볼 수 있다. 내무부는 그동안 자연보호의 실천 항목 중 自然淨化와 自然保存의 2가지를 추진 대상으로 삼아 왔으며 아울러 이에 따르는 教育·弘報 活動도 추진해 왔다. 또한, 교육의 한 분야로서 自然探究 施設(自然學習園·心身修鍊場·祖國巡禮自然步道 등)을 마련하고 이것을 利用하는 교육을 추진 확대해 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自然淨化 活動의 추진은 가장 重點的이고 가장 汎國民的인 사업이며 그 活動의 主体는 自然保護會이다. 여기서 主要한 것은 일반 폐기물(주로 고형 폐기물)의 收去인데 처음에는 ‘줍기 활동’에 중점을 두었고, 나중에는 ‘안버리기 활동’(사실은 바로 버리기 활동인데)에 중점을 두어 왔다. 이 활동을 위하여 自然保護 啓導 및 團東도 실시해 왔다.

自然保存 活動에는 自然保護脆弱地, 鳥獸保護區域, 市·道 및 市·郡 象徵物 등의 지

定管理와 自然保護 名譽監視官 委囑運營, 綜合學術調查 實施가 들어 있다. 教育·弘報 活動에는 自然保護示範學校 育成, 自然保護 教育, 關係圖書 發刊, 映畫 및 슬라이드 製作, 關係定期刊行物 發刊, 弘報 活動(弘報媒體 活用, 弘報行事) 등이 포함되어 있다.

上記한 여러 가지 活動의 實績에 관한 集計 數値는 上記 資料集에 표시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그 인용을 생략하고, 다만 다음 한 두 가지를 보충한다.

上記한 「關係圖書 發刊」의 目錄에는 들어 있지 않으나 一讀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自然保護의 理念 鼎立과 實踐 方向(江原道, 1981)」과 「自然保護 運動의 長期的 基本計劃(忠淸北道, 1981)」이 있으며 특히 후자에는 「自然淨化 活動의 推進 方向」이 들어 있다.

韓國自然保存協會는 기관지 「자연보존」을 창간(1968. 12) 이후 52호(1985. 12) 까지 발간했으며 綜合學術調查報告書는 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1977년까지) 이후에 格列飛列島 및 隣近島嶼(1978), 臨溪岫 築造 豫定地 및 箭川江一帶(1978), 巨濟島 南部 및 隣近島嶼(1979), 主屹山 및 月岳山一帶(1979), 新安郡牛耳群島 및 隣近島嶼(1980), 七甲山 및 鷄龍山一帶(1980), 古群山群島(1981), 鬱陵島 및 獨島(1981), 江原道 桂芳山一帶(1982), 智異山 피아골一帶(1983), 江原道 點鳳山一帶(1984), 周王山國立公園一帶(1985) 등 第23號까지 출간했고, 自然保存研究報告書 第1輯(1979, 각종 연구제목 17件), 第2輯(1980, 11件), 第3輯(1981, 19件), 第4輯(1982, 17件), 第5輯(1983, 14件), 第6輯(1984, 忠淸南道 綠地自然度 査定), 第7輯(1985, 錦江 下流域에서 生態·分類에 관한 제목 9件)을 출간했다. 이 밖에도 韓國近海바다哺乳動物實態調查報告書(1976)와 自然保護對象地域綜合調查(1980)를 낸 바 있다.

自然保護中央協議會는 기관지 「自然保護」

를 창간(1978. 7) 이후 36호(1986. 2) 까지 발간했으며 自然實態綜合調查報告書 第1輯 德積群島(1982)를 시작으로 莞島·隣近島嶼(1982), 多島海海上國立公園, 鳥島地區(1984), 巨文島·白島隣近島嶼(1985) 등 第4輯까지 냈다. 또한 이 協議會는 內務部의 해당 道後援下에 1979년부터 매년 개최한 「自然保護 세미나」에서, 해마다 主題와 場所를 바꾸어가면서 자연보호 관계학자, 관계관, 유관단체 간부들이 자리를 같이 하여 자연보호 운동의 方向 設定과 目標 達成을 위해 진지한 토론을 하였는데 이 때마다 「自然保護 세미나 論文」이 나왔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內務部가 주도하는 自然保護 運動은 「자연보호위원회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自然淨화와 自然保存의 2가지, 그리고 이에 관련된 教育·弘報 및 研究事業을 추진해 왔는데 그 내용은 해를 더하면서 多樣化 되었고 質이 높아졌다고 要約된다. 따라서 그동안의 實績은 많고 功績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직 철저히지는 못하지만 자연보호 사상이 國民들에게 널리 보급되고 그 실천의 度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自然保護 運動에는 問題點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自然保護를 廣義로 볼 때 內務部의 추진계획은 그 全体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무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自然淨化만 해도 그 대상이 거의 一般廢棄物(종이·연탄재·물품의 용기·비닐주머니·담배꽂초 등 固形物)에 국한되어 있다시피 한데, 사실은 産業廢棄物(燃燒殘滓, 汚泥, 廢油, 廢酸, 廢플라스틱, 고무·금속 찌꺼기, 鑛滓, 建設廢材, 紙類·木材·섬유 찌꺼기, 유리·도자기 파편, 家畜 분뇨 등)과 大氣·水質·土壤의 汚染物質이 자연정화의 중요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행하게도 1980년에 신설된 環境廳이 이런 것들을 처리대상으로 삼아 人間의 生活環境

문제 해결을 주도해 왔으나 실제적인 개선효과를 미약하다는 평인데, 마침 「第6次 經濟社會發展5 個年計劃(1987~1991)」의 일환으로 환경청이 環境保全部門의 계획을 세워積極 對處해 나갈 예정이라니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現行法과 廳이라는 行政地位를 가지고서는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며 自然保存이 어느 정도 강하게 반영될지 미지수이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이미 言及한 開發과 保存의 調和, 아니 開發과 保存의 統合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 開發을 앞세우는 바람에 保存은 거의 무시해 왔다. 이를테면 海岸의 埋立이나 간척사업에서 자연을 송두리채 파괴하면서도 保存 문제를 고려한 적이 있는가? 內務部가 「自然保護運動 推進指針」에서 1982년부터 「開發과 保存」을 거론해 왔고 '85년부터 「自然保存 活動 強化」에 「開發과 保存의 調和 圖謀」 항목을 넣은 것은 一步 前進이라 할 수 있으나 「各部處 開發計劃時」 自然保存의 優先 考慮를 「促求」할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 文化財保護라는 側面에서 天然記念物(1984년까지 258건)과 名勝(1979년까지 7건)을 지정하고 관리 보호해 왔는데, 이것은 文化財保護法(1962년 1월 10일 法律第961號로 제정, 그 후 8 차례 改正)에 의거하여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이 주관하고 있다. 이것은 法에 의거한 自然保存의 중요한 업적이며 當局은 이를 위한 調查 研究도 실시해 왔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自然保護 關係 法令도 많고 關係 部處廳도 많아 각각 나름대로 자연보호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이렇게 「많다」는 것이 바로 問題點이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명료한데 그것은 모든 관계법령에 우선하는 自然保護基本法이 제정되고 관계법규가 정비 체계화하는 일과 자연보호 업무를 통괄 조정할 수 있는 格이 높

은 행정기구가 마련되는 일이다.

위에서는 주로 行政側面에서 이야기 했으나 이것보다 더 基本的이고 重要的 것은 一般 國民과 企業人들의 自然保護에 대한 意識과 그 實踐의 정도이다. 아직까지도 이런 면에 큰 문제가 있음은 序頭에 언급한 개구리 요리 전이나 내무부의 「'86 自然保護 運動推進指針」에 「自然淨化 活動의 大의 展開」가 들어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 모두의 覺醒과 遵法精神의 양양이 절실하게 요망된다.

또 한가지 문제점이 더 있다. 自然保護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자연자체의 성질은 물론 그 파괴나 오염의 양상과 그 原因, 자연보존의 對象과 方法, 폐기물의 再利用 方法 등을 알아야 하므로 多角度的 具體的이고 科學的인 研究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연구가 매우 미흡하니 연구의 장려와 研究者에 대한 財政的 持援이 요망된다.

結 語

自然保護 運動은 빨리 종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自然保護 活動은 人類가 존속하는 한 그 자신을 위해서도 永久하게 持續될 일이다. 자연보호 활동에는 여러 가지 局面이 있어 연구·입법·행정·시설·관리 등 전문 지식을 要하는 일도 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무엇보다도 基本的이고 重要的 것은 사람들이 自然을 바로 알고 사랑하며 아끼는 마음씨를 가지고 자연을 깨끗이 하며 함부로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실천적인 행동이다. 이런 면이 바로 돈 안들이고 누구나 다 제각기 어디서든 언제나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이며 이런 일의 지속적 활동이 바로 自然保護의 生活化이다. □

〈論說〉 우리나라 自然保存의 過去와 未來

自然의 保護와 管理 - 現 實態와 當面課題 -

元 炳 昨

慶熙大 教授

우리나라 自然保護 運動의 발자취

우리는 지난 10여년 동안 비록 官의 주도 이긴 하였지만 自然保護의 汎國民인 運動을 展開하여 왔다. 우리들은 먼저 자신의 生活周邊에서부터 여가 선용의 대상이 되는 휴양지나 위락 지역에 이르기까지 半自意 또는 半他意에 의해 직능적인 단체별로 구역까지 할당 받아 동원되다시피 환경의 정화작업에 참여하였다.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쌓이고 쌓였던 빈병조각 비닐포장지 등 쓰레기는 다소 수거되고 있으며, 아직 손이 미치지 못한 奧地나 사람이 물려 찾는 곳에서는 한이 없겠지만, 외국인이 찾아와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노력은 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여기에 雪嶽山이나 漢拏山의 예를 들어보자.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그러니까 약 25년 전의 일이다. 1965년경까지 雪嶽山을 찾던 人口는 연간 약 300~500명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당시의 여관이란 寢食이 불편할 정도였으며 土產品이라야 보잘 것이 없었다. 神興寺 입구의 난립된 商街나 하찮은 여관들은 戰後의 가난했던 물골을 벗어나지 못한 채 과거의 모습 그대로 였다. 그 같은 사정은 漢拏山이나 智異山 등 지금의 국립공원들도 마찬가지 였으며 게다가 어지러울 정도로 더럽혀진 환경은 참으로 부끄러울 지경이었다. 그런데다 所謂 地方의 有志들은 자신의 영리를 위해, 지역 개발을 통한 道民의 福祉니 수출 증대니 하며 마구잡이 伐採나 하

여 표고버섯을 재배하겠다고 官의 허가를 얻는가 하면 호텔을 산 중턱에다 세워 휴양지로 만들겠다느니 산 꼭대기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어른을 모시게 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그것마저 부족해서 정상까지 자동차 길을 만들어,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하겠다는 등 실로 허울 좋은 맹랑한 독지가들의 우롱으로 자칫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잔존하는 가장 오래된, 그나마도 불과 얼마 남지 않은 原始自然마저 송두리채 앗아갈 위기에 있었던 1960년대의 지난날을 筆者는 지금 새삼스레 회상해 본다. 다행히도 動植物 및 地質關係學者와 뜻 있는 識者의 끈질긴 노력으로 文化財法에 의거, 自然文化財(天然保護區)로 指定되어 漢拏山이나 雪嶽山 등 天然林을 原始自然 그대로 保存하는데 成功을 보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60年代에 漢拏山을 개발하겠다는 地方有志의 계획이란 漢拏山 중턱에 표고버섯을 재배하여 당장 5萬弗 어치는 수출할 수 있다며, 漢拏山 중턱에 재배 면적을 점차 확대한다면 머지 않아 20萬弗의 輸出高는 자신 있게 올린다는 허황된 것이었다. 불과 10년 내지 20년 앞을 우리들은 쉽게 내다보지를 못한다. 그와같은 현상은 비록 한국에 국한하지 않는다. 가까운 동남아 地域에서 멀리 西方 여러 나라에서도 같은 전철을 밟았었지만 우리 개발도상국들은 결코 그와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근래에 雪嶽山을 찾는 人口는 연간 무려 수백만을 돌파하였고, 漢拏山을 오른 인원만 하더라도 지난해와 같

은 최악의 해에도 수십만명을 넘어섰다는 集計이고 보면 한 사람이 1弗(900원)씩만 그곳에 떨어뜨리고 간다 해도 엄청난 금액에 이르게 된다. 雪嶽山과 漢拏山을 享有하는 道民들은 自然의 觀光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保護 관리함으로써 자신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게 된다. 두고 두고 천부의 경관을 합리적으로 가꾸어 다목적적 가치를 살려야 한다. 만약 雪嶽山과 漢拏山이 특수 부유층의 인공 휴양지나, 간혹 高山登山家의 한날 혼련장에 불과한, 原始自然을 상실한 곳이 되었다면 외국 관광객은 물론, 우리 자신들도 우리 固有의 自然이란 찾아 볼 수 없게 되어 버리지 않았겠는가. 보잉 제트기를 타고 횡단하거나 종단하는데만도 5시간 이상을 요하는 호주, 미국, 소련, 중국 등 나라들은 30분이나 한 시간 비행해도 집 몇채 밖에 하늘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버려둔 自然이나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原始自然이 얼마든지 있다. 거기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좁은 땅덩어리와 높은 인구 밀도에서 허덕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기에「사람이 重要한가 自然이 더 重要한가」하고 地域 住民들은 개발에서 오는 눈앞의 小利에 기세를 올리게 된다. 이미 국토의 유휴 간척지는 거의 매립되었고 잔존하는 마지막 河口와 海岸도 매립하여 농지 확장 내지는 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이 진행중이다. 심지어 도시에서는 河川의 부지마저도 축구장이나 정구장으로 만들고 있다. 河川의 부지는 하천의 물그릇인 河床과 河川의 물과 더불어 3대 기능요소의 하나이다. 바람직한 높은 自然度는 하천의 경관이나 生態系의 調和와 均衡이란 넓은 의미 속에서도, 직접적으로는 부지 밀을 흐르는 伏流가 곧 河川의 정화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의 정구나 축구인구의 수요에 충족한다는 문제와는 性格을 달리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漢江을 조금이라도 맑게 하자면 부지와 自然을 되돌

록 많이 살려야 한다. 물을 뽑고 터를 닦아서 運動場을 만든다면 自然保護의 측면에서 볼 때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自然의 保護와 管理

自然保護란 다음 세 가지 기본개념에서 비롯된다. 첫째는, 훌륭한 건물, 자연경관, 野生動植物, 맑은 공기와 물, 심지어 쓰레기 없는 거리까지도 포함하는 그와같은 쾌적한 환경을 保存하고 保護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마도 그것이 自然保護의 전부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머지않은 장래에 공기와 물의 오염은 우리들의 생존마저 위협하리만치 위험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며 그것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한다는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들의 生存을 위한 環境의 質을 여하히 維持 改善해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절박한 문제와 직결된다. 그와같은 오염을 규제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즐거운 환경을 유지하자는 것이 둘째로 들 수 있는 自然保護의 기본 목적이다. 세번째가, 資源을 지속적으로 利用할 수 있도록 자원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체할만한 資源(代用品)을 찾아내기까지 最少限의 자원이 지탱될 수 있도록 利用되어야 한다는 概念이다.

흔히 주장하기를 만약 자원을 현명하게 開發한다면 바람직하고, 훌륭한 概念이 앞의 두 가지 概念을 포함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한다. 山林伐採 体系의 선택은 그 훌륭한 본보기의 하나가 될 것이다. 山林에 散在하는 성숙한 하나 또는 적은 集團의 나무들은 벌채되며 自然的으로 更生을 위해 교체되게 마련이다. 그것은 生態系의 계산된 최대유지 수확을 거두어 들이는 길이며 環境에 대해서 최소한의 영향 밖에 미치지 않을 뿐더러, 景觀의 質, 營養 및 물의 순환기능이나 심지어가 혹한 伐採에 의한 浸蝕 등 손실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곧 훌륭한

自然保護란 뜻일까. 一般적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野生生物과 自然景觀 保存을 감안한 좁은 의미에서는 손실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伐採體系上 대개 벌채될 수 있는 많지 않은 성숙한 나무들은 이끼와 蘭科植物같은 稀貴한 着生植物을 위해선 매우 重要的 生育地가 되고 있으며 성숙한 나무들의 지속적인 伐採는 많은 山林動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인 枯死木 生態系를 박탈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開發된 環境이란 어떠한 개발일지라도, 손대지 않고 남겨둔 환경을 사실상 크게 손상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自然保護를 위해서는 皆伐보다는 野生生物에게도 확실히 유리한 伐採의 選擇體系로 절충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資源(例: 樹木)의 개발은 다른 하나의 消耗, 즉 野生動物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자원 이용은 거의 항상 相反된 두 가지 局面에서 투쟁을 내포하고 있으며 개발 주창자와 반대자 간에는 언제나 논쟁이 전개되기도 한다. 水理工學者는 用水保護 계획에서 새로운 貯水池가 필수적인 요소이나 농민들 입장에선 좋은 농토를 상실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貯水池는 물새(水禽類)와 餘暇 善用に 크게 기여하게 되며 낚시터나 물새들의 새로운 棲息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듯 自然保護는 흔히 相反되는 주장을 절충하면서 양면으로 정의를 유도해가는 것이다. 즉, 그것은 人類社會에 대한 情緒的, 教育的 여가 선용 및 경제적 利益을 極大化하기 위한 目的으로서 자연환경과 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데 있는 것이다. 낭비만 피한다면 자연 자원을 개발하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즐길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각자의 취향(지각 대상)에 크게 좌우되기는 하지만 사람에 따라 쾌적도에 매우 예

민하거나 아주 둔하기도 해서 나비가 줄어들기만 해도 자각하는 경우와 酸性비가 빨래줄의 옷색깔을 바래게 할 정도까지 되어도 무반응일 수도 있듯이 매우 다양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자원 利用에 대한 주의 깊은 기획과 관리는 소비와 환경영향을 동시에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근래에 와서 自然保護 運動은 자연 자원 開發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利用을 제창해왔으며 종전보다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英國에서도 1960年代 중반까지만 해도 주요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野生鳥類는 減少되었으나 그에 대한 관심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개발에 따른 野生生物의 영향에 대해 많은 輿論이 일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의 주창자들은 아직까지도 지난 날과 같이 野生動植物이나 自然景觀 保存의 價值를 알보며 개발에 따른 현저한 物質의 利益만을 내세워 자연환경 보존은 말 뿐인 공치사에 불과했다. 그 대신 그들은 개발을 통해 가져오는 장점을 극찬해왔다. 개발한 새로운 環境에 잘 적응된 많은 野生動植物과 자연경관은 보다 豐饒로우며, 적막한 濕地와 거기에 依存하는 물새들에 대해선 크게 걱정할 것이 못되며, 우리의 현실은 이미 거의 開發된 환경이 대부분이며, 지난 날과 같은 原始自然이란 찾아 볼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와 같은 개발을 통해 自然을 保護하겠다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은 自然保護가 개발이나 심지어 開發과 거의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自然環境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연보호란 「效率的인 資源 利用」과 「自然保護」의 두 가지로 区分되는 것이며 그것은 때로는 兩立하면서도 一致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種과 主要 生態系の 保護

人類의 歷史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地球上에서 사라져간 鳥類의 태반은 印度洋모리셔스(Mauritius)섬에서 살고 있던 마지막 한 마리의 새, 도도(Dodo, *Raphus cucullatus*)가 死滅한 이후, 거의 지난 300년 동안에 滅種되어 갔다. 代表的인 形態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거나 그들의 歷史가 확실한 증거가 있는 絶種된 鳥類만 해도 42種 44亞種에 이르며 아마도 絶種되었다고 간주되는 鳥類가 11種 8亞種에 달하는데 우리나라의 원앙사촌도 여기에 속한다.

1980년 9월 5일 美国 國務省과 環境評價委員會會議의 「地球 2000年 報告書」에 따르면 地球上에서 生存하는 動植物 資源의 15~20%에 해당하는 50萬種에서 200萬種이 2000년까지 消滅되리라는 것인데, 이것은 地球上에서 하루에 한 種씩 사라져 가리라는 것이다. 그 주요 원인은 棲息地の 消滅과 環境의 오염에서 비롯되었으며 그와같은 規模의 種의 絶滅은 人類 歷史上 前例를 볼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熱帶 降雨林의 약 40%는 이미 사라졌다고 하며 今世紀 末에는 약 3분의 1 밖에 남지 않으리라는 展望이다. 거기에 곁들여서 함께 사라져가는 種들, 예를 들면 그곳에 依存해서 살아가는 昆蟲 따위를 包含시켜 推算해 본다면 地球上 生物의 약 50萬種이 현재 植物과 함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1978年 美[國]의 Eckholm박사의 집계).

1600年 以來, 地球上에서 살던 짐승(哺乳動物)은 4,648種 가운데 94種이 이미 멸종되었다.

氷河期 末에 大型 짐승과 鳥類들이 200屬이나 絶種되는데 비하면 비교적 적은 수의 種에 불과하다고 생각될지 모르나 현재 危機에 처해 있는 짐승과 새는 각각 약 120種과 187種에 이르고 있다. 그 原因은 남획, 棲息地 파괴, 脆弱 動植物相에 미친 導入種의 영향 등 多様하나 인간에 의한 개발과 파괴가 첫

째 원인이 된다.

흔히 進化 過程에서 많은 種이 사라져 간다고 생각하지만 進化 過程에서 絶種된 種들은 한 種이 사라지면 다른 새로운 種으로 대체되어 왔다. 그러나 人間에 의한 絶種은 교체 없이 완전히 멸종을 초래하고 만 것이다. 人間에 의한 영향은 野生生物과 景觀에 대해 回復될 수 없으리만치 거의 완전한 파괴를 가져온 것이다.

한편, 英國의 경우 2,300種의 野生植物(顯花植物)중 700種 이상이 導入된 種들이며 陸地 哺乳類 40種 가운데 19種이 導入된 種들이다. 이들 導入된 種들은 멧토끼와 청설모 등 일부 해로운 種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種들이 英國의 自然을 多樣化 하였고 그리고 아름답게 수 놓아 주었다. 또한 잊어서는 아니될 중요한 사실은 수천년 동안 많은 生物의 種들이 氷河期 이후의 極相林을 피난처로 삼아 生存해 왔으며 人間에 의해 山林伐採로 조성된, 풍요한 種을 가진, 半自然林은 많은 種을 다시금 번영하게 했다.

그러므로 最少限의 種을 維持할 수 있는 길이란 최소한의 자연지역을 자연유보지역, 즉 自然保護地域으로 남겨 보호함으로써 보다 넓은 地域으로 再群集케 할 수 있는 土地利用이 될 것이다. 오늘날의 개발계획에서는 언제나 資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선 相反된 地域, 즉 따로 分離시킨 一定한 地域을 永久保存토록 하여야 하며, 그것은 自然保護運動의 基本 目標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絶種 危機에 처해 있는 種이 적지 않다. 哺乳類 20種, 鳥類 50種, 兩棲爬蟲類 12種, 淡水魚類 30種 및 顯花植物 118種 등 많은 種들이 危機에 처해 있다(1981年 韓國 自然保存協會 発表).

최소한의 自然保護地域(Nature Reserve) 설정을 서둘러, 더 늦기 전에, 海岸, 山林, 濕地帶(갯벌), 河川과 그의 부지 등 주요 生態系의 代表的인 地域들을 따로 남겨 絶種 위

기의 種과 자연경관을 永久保存할 수 있도록 최후의 堡壘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2000年代의 自然保護 戰略

自然保護에 있어서 2000年代의 전망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그 하나는 絶種 危機의 生態系를 保存하기 위한 戰術的 次元에서 최후의 堡壘를 구축하는 일이다. 즉, 최소한도 규모의 自然保護地域의 設定과 人工繁殖에 의한 復元事業이 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환경보호와 함께 자연보호가 병행되어야 할, 자연보호와는 兩立될 수 없는 可恐할만한 人口와 경제 성장에 따른 災難에 對処하기 위한 戰略인 것이다.

스탠포드大學 生物科學科 Raul R. Ehrlich 教授는 최근(1980) 그의 論著「1980~2000 自然保護戰略」을 통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자연보호의 鐵則을 提唱했다.

① 자연보호에 있어서는 오직 성공적인 방어가 아니면 후퇴만이 있을 뿐이다. 결코 進展(Advance)이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파괴된 種이나 生態系는 復元될 수 없기 때문이다.

人間이 自然을 改造하여 제아무리 원래의 種으로 構成된 生態系를 正確히 再構成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연생태계의 집단으로 이루어진 遺傳의 구성과는 확실히 다른 것이 생겨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種이나 生態系는 모두 인위적으로 再生이 절대 불가능하다.

② 계속되는 人口 成長과 자연보호는 근본적으로 兩立될 수 없다.

先進國인 美國과같은 나라는 15年 後인 2000年의 人口를 불과 13%의 人口成長率로 抑制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低開發國家는 人口성장률이 年間 2.5%에

지는 그 以上으로 增加되며, 20年마다 倍增되어 2000年에는 世界 人口가 거의 60억에 이르게 될 것이며, 한 世紀가 바뀔 때마다 人口는 50%의 증가를 나타내, 앞으로 100年 後에는 80~120억에 육박하리라는 展望이다. 따라서 熱帶地方을 위시한 저개발국가들은 最小(minimum)에서 零(zero)의 人口政策으로 急速히 轉換되어야 함은 再論을 요하지 않는다.

人口의 성장이 계속되는 한 人類의 棲息地는 결국 파괴되고 말 것이라는 原理를, 基本的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自然保護에 關心 있는 人士들이나 대부분의 世界 政策樹立者들은 아직까지 認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더 정확히 말해서 天災地變이 일어나기 前에는 人口의 倍增은 不可避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③ 經濟成長 體系와 자연보호는 根本적으로 兩立될 수 없다.

自然保護 側面에서 특히 強調되어야 한다. 世界 生物圈은 野蠻的인 인구성장률과 더불어 人間에 의해 자행되는 행위에 의해 크게 破壞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들은 보고 있다.

④ 地球의 利用에 대해 倫理的인 결정을 함에 있어 人類의 短期的인 목표와 즉각적인 幸福만을 追求하는 思考方式은 사람 이외의 生物 뿐만 아니라 人類에게도 致命的이다.

⑤ 人間 이외의 生命體에 대한 美的 價値나 그들의 本質的인 興味 내지는 地球上에서 우리들의 살아 있는 伴侶者라는 同情 등 감상적인 呼訴와 같은 論法은 牛耳讀經인 것이다. 자연보호란 人類福祉에 관한 문제이며 장기적으로는 우리들 自身の 生存에 대한 問題로서 促進되어야 한다.

④와 ⑤의 法則은 자연보호 운동에서 變革을 가져올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殘存하는 地球生物圈의 運命과, 그들의 職책과는 기본적으로 무관한 것같이 여기고 있다. 人間은 약간의

직업이나 追加的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利得의 비율만을 갖고, 이 地球上에서 生物의 種이나 한 집단을 몰아낼 수 있는 完全한 合理的인 理由로 생각하고 있다.

人間은 植物을 人工잔디나 프라스틱 木材로 代替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動物은 家畜과 人類를 위해 개발된 적은 수의 種으로 줄일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다. 人間은 胚種(germs) 以外の 微生物의 역할을 잘 모르고 있다. 많은 工學者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1975년의 Abbey의 主張과같이 地球는 완전히 스무스하게 扁平해져야 하며 그럼으로써 道路는 人間이 원하는대로 어느 곳이든지 鋪裝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자연보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自然의 破壞의 開發과 妥協이나 양보를 서슴치 않고 있다. 우리는 주변에서 나날이 喪失되어가는 自然度에는 이랑곳 없이 所得의 向上에만 급급한 나머지, 심지어 自然物의 採取를 통한 비정상적인 生活의 享樂마저 흥행하는 처사야말로 우리들의 올바른 자연보호 倫理觀의 不在에서 비롯되었으며 아직까지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人類學者 Claude Levi-Strauss는 “조그마한 어떤 種의 벌레일지라도 博物館에 用意周倒하게 진열된 예술품과 맞먹는 가치가 있는 놀랄만한 것”이라고 말한 名言을 우리들은 想起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작은 벌레나 덩불의 보잘 것 없는 生命體일지라도 그들은 人間의 生命을 維持하는데 결정적인 無價의 奉仕를 하고 있으며 거대한 자연과 복합체의 一部이며 거의 인식되어 있지 않은 장치의 일부라는 사실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날의 성장과 개발의 추세는 극적이고 全世界的인 규모의 社會·政策的 및 경제적 혁명 없이는 變革이란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보다 強硬한 자연보호 전략이

요구되는 것이다. 자연보호 운동은 먼저 人口抑制 運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점차 人口 成長을 줄이고 나서 성장을 멈추고 出生率이 死亡率보다 다소라도 더 낮아질 수 있게 되려면 數世紀가 所要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一人當 에너지 소비량도 줄여 나가야 한다. 美國은 1970년 중반의 약 70quads (1 quad는 0.950)에서 2,000년에는 60quads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確實視되고 있다. 美國을 비롯한 先進國들은 最近 일기 시작한 ‘지탱할 수 있는 社會(sustainable society)’ 운동에 참여 하여야 한다. 人口 成長이 鈍化하여 停止되면 동시에 正지상태의 경제(Steady state economy)로 전환되어야 한다(경제학자 Herman Daly, 1977). 그와같은 경제는 物質의 消耗를 代替하기 위한 과정만으로 가급적 최대한으로 再循環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資材와 에너지 소모의 성장이 중지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資材의 質과 人的 資本은 극대화 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경제성장은 地球의 生命體를 위협하는 主要 要因이 되며 경제 성장도 人口의 성장처럼 언젠가는 끝이 나야만 한다. 먼저 선진국에 이어 開發途上國家들과 다음으로는 低開發國家에도 平和的으로 유도되어야 하며 미국 등 先進國은 示範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 에너지 공급을 확장해 나아가는 한 人類는 熱帶原始林의 伐採와 「스마트라 코뿔소」와 「고릴라」로부터 손을 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불가피한 저개발국가에서는 거의 不可能한 일이지만 國內과 國家間에서의 富의 再分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富者의 나라를 더욱 부자로 만든다는 것은 地球의 環境을 보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結果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地球의 資源은 제각기 再分割하려는 시도가 불가피함은 분명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마치 世界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행기 날개의 못을 하나씩 빼내어 그것을 팔아 먹는 것과 흡사한 일이다. 비행기의 一等客室에 앉은 승객이 가난한 사람들이 生存하기 위해 비행기 날개의 못을 팔지 못하도록 그들의 富를 비행기 날개의 소유자들과 함께 나눌 가치가 있음은 自明한 事實이다. 예를 들자면 熱帶山林의 巨大한 原始林 保護地域들의 개발을 阻止함으로써 策定된 예산을 저개발 국가에 補償하고 行政의인 비용을 부담하면서 열대림을 보존할 수 있는 財政的 뒷받침을 하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自身들의 利益과 복지를 위한 길이 될 것이다. 수 천ha의 熱帶原始林을 일시적으로 保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熱帶產 木材와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法을 먼저 제정하는 것이 殘存하는 熱帶林을 보호할 수 있는 効果적인 方策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殘存하는 韓國의 自然

우리나라에는 지금 우리의 氣候와 風土를 代表할만한 自然, 즉 原始的의 自然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중 오래된 산이라야 雪嶽山과 漢拏山, 그리고 상당히 파괴는 되었지만 智異山 정도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 밖에 河川과 河口 그리고 沿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自然은 모두 人工 自然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西海岸과 南海岸, 그리고 內陸의 草地나 遊休地는 모두 사라졌으며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서 과거와같이 自然度 높은 自然景觀이란 거의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國土 面積의 1백분의 1도 안되는, 韓國의 오랜 原始에 가까운 自然, 雪嶽山과 漢拏山, 그리고 洛東江 및 漢江河口 등 地域은 간접적일지라도 影響을 미칠 수 있는 여하한 개발도 그 地域만은 제외되어야 할 뿐더

러 특별한 保存策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法的으로 規制를 받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規模를 가진 自然地域이란 文化財保護法에 의거 보호를 받고 있는 天然(自然)保護區로 指定된 수 개의 地域 뿐이다. 그것은 前記한 雪嶽山과 漢拏山, 그리고 洛東江과 漢江河口 등의 地域이다. 이들 地域이야말로 마지막으로 殘存하는 최후의 堡壘로서 保存되어야 할 教科書와 같은 自然地域이다. 우리의 4천년 歷史를 통해 이루어진 典型的이고 代表的인 景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가장 다양성을 지닌 우리 固有의 生態系들이다. 바로 그것에서 나머지 온 國土를 合理的으로 管理하며 利用할 수 있는 攝理를 우리들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美國의 자연보호학자 Pyle(1980)이 지적했듯이 自然保護地區란 木材를 生産하거나 大衆을 위한 一般事業과는 거리가 멀어 자연상태로 永續시키기 위해 개발로 부터 分離시킨 일부 지역일 뿐이다. 地球上에서 극히 例外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보호 지구란 모두가 自然의 多樣性 保護(Diversity conservation)에 그의 실제적인 目的이 있으며 基本的으로 市場(Market place) 밖에 있다. 어디까지나 多樣性的의 保存(Preservation of Diversity)이 基本概念이다.

우리의 當面한 課題

첫째, 自然保護에 입각한, 均衡잡힌 快速하고도 풍요한 그와같은 環境의 都市와 農漁村을 만들자. 모든 농토가 농작물 재배에만 쓰여지는 것은 아니다. 農土의 가장자리 외딴 구석진 곳, 가파른 傾斜地, 雜木, 덩불, 움푹한 버려진 땅, 그 밖의 쓸모없는 農路 가장자리, 農家の 建物과 안마당이나 뜰, 경계 울타리, 생(나무)울타리, 물길, 도랑 등의 空間은 必要的인 것이다. 농지에서 대

부분의 경우 野生動物들은 이와같은 곳에 依存해서 살게 된다. 심지어는 農家の 건물에서 제비나 귀제비를 위시한 소쩍새, 후투티, 멧새, 할미새 등 많은 들새들이 둥지를 틀고 있지 않는가. 위의 棲息地들은 되도록이면 들새들의 보호를 위해 合理的으로 管理되어야 하며 한 치의 땅, 한 평의 공간이, 비록 농사나 牧畜業에는 쓸모 없는 땅일지라도 자연보호의 견지에서는 가치가 충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들 自身을 포함해서 들새와 昆虫들 그 밖의 모든 것들이 균형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 集團을 이룩해야 한다. 불도저를 投入하기 전에, 농가에서 놓고 있는 땅이라고 해서 불지르기 전에 되도록이면 自然 그대로 남겨둔 채 環境을 造成해 나아가야 한다.

都市와 農漁村에서는 庭園이나 공지에 값비싼 觀賞樹만 심어야 하는가. 그렇다고 해서 도시나 농가의 마당과 뜰에까지 經濟性 있는, 혹은 用材樹木만을 栽植하여야만 하는가. 造景上 價値보다는 自然保護의 觀點에서 인위적이나마 均衡 잡힌 豐饒한 環境이 절실히 要求되는 것이다. 자연보호에 으뜸가는 나무와 풀을 많이 심자. 가급적 한국의 自生植物로부터 그 地域에 알맞는 나무와 풀, 그 중에서도 나비와 벌레, 그리고 이를 먹기 위해 새가 찾아드는 꽃이 피고 열매도 맺히는 各種 種子植物을 많이 심어야 하겠다. 英國에서는 自然保護- 野生動物을 위해 常綠針葉樹類보다도 落葉闊葉樹類, 특히 참나무類가 바람직하다고 권장하고 있으나 빨리 자라는 落葉闊葉樹를 混植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農漁村에서는 이를 가꾸고 있는 땅의 所有主와 管理者에 의해 좌우되게 마련이지만 경제적이고 集約的인 농업 일련도의 농촌을 野生動物이 노니는 기름진 自然環境으로 만들자면 30년은 걸려야 된다는 것이 英國에서의 敎訓이다.

都市와 都市周邊은 計劃 段階에서부터 野

生動物의 보호와 관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온 國民은 自然保護의 監視者가 되자.

自然保護에 위배되는 인위적 피해로부터 먼저 보호에 앞장을 서자. 자연에 대해 지켜야 할 최소한도의 倫理를 의무로 삼자.

특히, 放送을 비롯한 大衆媒体는 自然 훼손의 現場을 고발함은 물론, 자연환경 보존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國民의 理解를 넓히기 위해 社會啓導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하여야 한다.

셋째, 政府는 自然保護基本法을 하루 속히 制定公布하고 독립된 行政機構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自然保護研究所를 設置하여 民間機構도 적극 育成 支援하여야 한다.

時急한 自然聖域의 設定

國土 面積이 넓은 나라일수록 人口 密度는 낮는데 비해 국토 면적이 좁은 나라일수록 오히려 人口는 조밀한 현상을 나타낸다. 특히, 今世紀에 와서 人口의 增加와 科學技術의 發達, 자원과 무역의 차원에서 國家間에는 새로운 위치를 形成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km^2 당 379명으로 西歐에서는 가장 높은 人口 밀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340명으로 521명의 방글라데시, 440명의 대만, 341명의 푸에르토리코, 315명의 벨기에 등의 나라와 함께 네덜란드에 버금가는 인구 조밀국이 되었다.

한편, 西歐 사람(스위스) 한 사람이 消費하는 資源은 아프리카 사람(소말리아) 55명과 같다는 國際自然保存聯盟(IUCN)의 자료를 보면 놀람기만 하며 西方의 나라일수록 人口 增加는 보다 문제시된다는 事實도 절감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對策이란 과연 무엇부터 先行되어야 할까. 먼저, 政府에 의해

채택되는 자연보호 실천계획, 즉 정책적 차원에서의 實踐計劃이 우선 되어야 하며, 一般國民의 覺醒과 積極인 호응, 그리고 최소한 지켜야 할 自然에 대한 國民의 倫理가 병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西歐의 대부분 國家들에서는 1970年代에 이미 自然保護法을 制定하였고, 여기에 따르는 自然保護地區(Nature reserye)를 設定하였다.

自然保護地區란 國立公園이나 그 밖의 여러 가지 형태의 公園과는 성질을 달리하여 國立公園 마저도 자연경관을 보호한다는 目的과 함께 國民의 여가 選용을 병행하는 保存과 利用을 兩立시키자는 것이지만 자연보호지구는 절대 보존을 요하는 자연경관을 聖域으로 보존하자는 것이 主目的이다.

마치 그 나라의 山, 河川, 늪, 草地, 湖沼와 海岸 등 마지막으로 殘存하는 代表的인 自然生態系의 教科書와 같은 地域들이다.

이것은 自然保護上 개발이나 파괴로 부터

保存하겠다는 最後의 堡壘로서의 수단, 최소한도의 國土 面積을 自然 그대로 남겨 두자는 地域이다.

나라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적게는 國土面積의 0.15%에서 49%에 이르는 나라도 있지만 대개 1%에서 5% 面積의 自然保護地區를 갖고 있는 國家들이 통상적으로 많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될까.

文化財保護法에 의해 指定된 天然保護區는 대략 0.01% 정도 되는 것 같다. 하루 속히 영구적으로 保存되어야 할 各種 生態系의 聖域, 단 한 정보에서 수 백 정보에 이르는 자연보호지구를 많이 設定 管理하여야만 하겠다. 자연보호지구 이외에도 바둑판이나 거미줄 모양으로 온 國土를 덮다시피 흩어져 있는 自然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형태의 크고 작은 부지기수의 聖域들이 설정되어 合理的인 管理와 利用을 하고 있는 西方國家들을 하루 속히 본받아야 할 것이다. □

귀하의 입회를 환영합니다!!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학술회원으로 구분되며, 일반회원에게 정기간행물 “자연보존”을, 그리고 학술회원에게 “자연보존”과 함께 본회가 발행하는 “학술조사보고서”와 “학술연구보고서”를 드립니다.

가. 일반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모든 분.

년 회 비 : 2,000원

나. 학술회원 : 특히 자연자원 보존 연구에 종사하는 분.

년 회 비 : 10,000원

문의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우체국 사서함185호

한국자연보존협회 (02) 962-2894, 963-3160

〈論說〉 우리나라 自然保存의 過去와 未來

自然에 대한 倫理觀 定立

金 遵 敏
서울大學校 名譽教授

머릿말

햇빛이 따스해지고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는 봄이 되면 우리의 가슴은 환희와 희망에 부른다. 눈 속에서 빼만 남아 한들거리던 버들가지에서 병아리 털처럼 보드라운 눈이 나오고, 또 거기서 가냘픈 잎새가 나오리라 누가 믿었겠는가?

눈으로 보는 봄은 정말로 가슴벅찬 것이다. 이윽고 민들레와 냉이 역시 꽃망울을 짓는다. 들에 피는 이른 봄의 꽃들은 희고 노란색으로 변하는데 자주빛의 제비꽃과 할미꽃은 더욱 돋보인다. 이때쯤 되면 고요는 깨지고 만다. 蘇生하는 生命의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꿀짜기를 흐르는 냇물의 졸졸거림, 그들을 반기며 잉잉거리는 꿀벌들의 소리가 들려오고, 겨울을 지낸 새들도 다시 노래를 시작한다. 이러한 하루 하루가 해마다 거듭되는 놀랍고도 必然인 生命의 過程이 이룩되는 순간과 순간의 連續이다. 낡은 세상이 다시 젊어지는 봄,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나는 時期이다.

우리 모두는 자연의 연출을 목격하는 동시에 參與者이기도 하다. 우리는 自然과 더불어 살아간다.

사람들은 봄비를 흠족한 마음으로 맞아가 하면 봄비는 뿌리에 영양을 주고 씨를 싹트게 한다. 血液이나 樹液은 生存을 위한 生命의 脈이다. 어찌 팔, 다리를 자르듯 나무가

지를 꺾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自然을 사랑하자

自然에 대한 사랑 없이 自然을 保存한다는 것은 空念佛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려면 먼저 자연에 대한 깊은 認識이 앞서야 한다. 자연의 사랑스런 모습을 눈으로 보고, 냄새를 느끼는 것만으로는 지탱해 나갈 수 없는 노릇이다. 아껴야 할 자원에 대하여 몇가지만 살펴보기로 한다.

진달래-봄을 알리는 꽃으로 우리의 총애를 받고 있는 꽃 중에서 뭐니뭐니 해도 진달래를 먼저 꼽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진달래에 대하여 예상 외로 모두 잘못 알고 있지 않은가. 그도 그럴 것이 “한국식물도감”을 들쳐보면 진달래는 산의 양지 쪽에 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진달래는 산의 北斜面, 즉 그늘진 곳에 많이 나고 있다. 벌써 10여년 전에 筆者가 調査한 바에 의하면 진달래는 산의 北斜面에 많이 나타나는데 北쪽에서도 北, 北東, 北西의 순으로 出現頻度가 높고, 南쪽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같이 뚜렷한 立地 選擇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달래는 양지 쪽에 나타난다고 하였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다음으로 그릇된 인식은 진달래는 메마른 곳에 잘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잘못된 方位와 관련된 것으로 양지바른 곳은 北쪽보다

※ 本稿는 '66. 2. 27~28일에 걸쳐 실시된 全國 自然學習園 및 心身修鍊場 教官 教育時 講義된 內容을 轉載한 것입니다(編輯者)

메마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모양이다. 실제로 진달래가 많이 나는 곳은 山의 北斜面으로, 그곳은 다른 環境要素 보다도 토양의 수분이 적당하여 土表面에 이끼가 껴 정도의 축축한 곳이다.

진달래에 관한 또 다른 잘못은 진달래는 산성토양에만 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산성토양에서 다른 植物과의 競爭에 이진 결과 오랜 동안의 適應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筆者가 調査한 바에 의하면 진달래가 나 있는 곳의 토양은 진달래가 없는 곳의 토양보다 酸性이 약하였던 것이다. 外國에서도 진달래가 산성토양에 많이 나는 것은 토양중의 수소이온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산성토양에서 잘 녹는 철분(Fe)을 흡수하기가 쉽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혔다. 봄의 王者로 군림하는 진달래에 대하여 이처럼 무지한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할미꽃 - 아직 봄볏이 따사롭기에는 이른 봄 누르스름한 잔디밭에 흰털을 쓴 할미꽃이 한 두 포기 피어 있는 것을 보면 정녕 봄이 왔구나하는 느낌이 든다. 할미꽃은 겨울이 너무 추운 곳에서는 살지 못하며 따라서 높은 산에서는 볼 수 없다. 美國에서는 800 m 이상의 高地에서는 나지 않는다고 하며 주로 白堊土에 한하여 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石灰岩地帶에 할미꽃이 많이 나타나며 특히 共同墓地의 무덤 위에 많이 나 있다. 할미꽃은 Ca이 많은 토양에서 잘 자라는 것으로 보아 무덤에 잘 나는 이유를 알만 하다.

할미꽃은 多年生 草本으로 줄기가 數cm 자란 후 꽃잎이 겨우 피기 시작할 무렵의 總苞는 보드라운 흰털로 덮여서 애처로운 느낌을 주나 꽃대(花梗)가 자라면서 끝이 굽으므로 꽃은 밑으로 숙여져서 핀다. 마치 수줍어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은 姿態를 애달프게 생각하는 동안에 20餘日이 지나면 꽃은 떨어지고 씨에 붙은 흰털이 자라서 마치 백발이 성성한 老人의 머리처럼 보이므로 白頭翁이

라는 이름으로 옛부터 詩人의 感動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꽃 봉오리 때에는 꽃대가 꽃잎이 자라다가 꽃이 필 무렵에 머리가 숙여지는 이 사실은 비바람으로부터 암수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꽃이 진 뒤에 곧바로 서서 때맞춰 불어오는 바람에 흰털의 씨를 멀리 퍼지게 한다. 할미꽃의 원뿌리는 우렁처럼 통통하며, 추운 겨울에는 땅 속으로 한 자 반이나 뚫고 들어가서 추위에 견디며, 또 거기에 양분을 저장하여 여러개의 혹같은 싹을 기르고 있다. 싹속에는 어린 줄기가 들어 있어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며, 싹은 보드라운 털로 덮여서 스스로를 보호한다. 할미꽃의 뿌리는 회충, 학질 등에 걸렸을 때 다려서 먹으면 좋다고 한다. 筆者도 어려서 학질에 걸렸을 때 할미꽃 뿌리를 캐러간 일이 생각한다.

참나무 - 참나무는 北半球의 中緯度 지역에서 우세한 산림을 이루고 있는 落葉闊葉樹로, 우리나라와 위도 및 기후가 비슷한 美國 東北部의 自然林은 거의 참나무류로 되어 있으며, 유럽에서도 비슷한 기후 하에서는 참나무 무리가 우세한 산림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참나무지역은 現代文明의 中心地로 참나무文化帶로 알려지고 있다.

이 참나무문화대에서는 옛날부터 도토리를 맷돌에 갈아서 식량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과 유럽의 시골에서는 우리나라의 맷돌과 꼭 같은 맷돌을 찾아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들 지역은 우리와 같은 참나무文化帶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나무는 도토리가 열리는 갈참나무, 실갈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북가시나무 등을 총칭하며, 특히 상수리나무와 같은 말로 쓰이기도 한다. 도토리는 有史 以來 좋은 식량이 되어 왔다. 農耕時代에 이르러서는 救荒植物로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래서 지금도 산과 들에 있는 참나무에는 도토리를 따기 위하여 휘두른 떡메 자국이 줄기

의 아랫 부분에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벼농사를 짓게 되면서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자 날씨의 변화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날씨를 어떻게 알아차리느냐에 있다. 옛날부터 우리의 조상들은 참나무의 활동 습성을 보고 날씨의 변화를 점쳤던 것이다. 날씨를 물리적 기기로 측정할 수 있는 온도, 日照, 습도, 강수량 등의 氣象狀態가 연출하는 결과라고 보면 이들 기기에 의하여 얻어지는 수치는 개개의 측정치에 지나지 않을 뿐, 여러 기상요소들의 협동작용에서 생기는 總和的인 效果를 나타내지는 못한다. 이러한 총화적 효과는 식물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으므로 식물의 季節現象은 날씨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指標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식물이 나타내는 계절 현상을 보고 그 해의 豐凶을 점쳤던 것이다. 그 한 예로 “도토리는 벌판을 내려다 보면서 연다”라는 俗言이 있는데, 이 말은 들판에 凶年이 들면 참나무에 도토리가 많이 연다는 것이다. 이것을 풀이하면 도토리꽃이 만발하면 그 해는 凶年이 되고 꽃이 시원치 않게 피면 그 해는 豐年이 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메카니즘은 生態學的으로 설명이 可能하다. 즉, 도토리꽃이 필 무렵에 비가 많이 와서 도토리꽃이 시들면 그 해는 도토리가 잘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도토리꽃이 피는 시기는 모심기철이므로 흙백 내린 비로 대부분의 天水畝에 모심기가 순조롭게 되어 豐年이 든다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도토리꽃이 필 무렵에 가뭄이 들면 도토리는 많이 열리지만 벼농사는 凶年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를 上木 즉, 좋은 나무로 여기고 사랑한데 반하여 참나무는 도토리를 주워오는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는다. 지금도 참나무는 雜木으로 다루

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소나무는 모래땅이나 地力이 좋지 못한 건조한 곳에 나 있는 것이 보통이다. 설악산의 바위틈이나 모래땅에서는 소나무가 자라고 그 밖의 지역에는 참나무, 단풍나무, 서나무같은 闊葉樹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소나무는 토양이 기름진 곳에서는 참나무와의 경쟁에 지므로 자연 억제당하고 만다. 서울의 南山에서도 北斜面의 축축한 땅에서는 참나무무리가 훌륭한 숲을 이루고 있는데 반하여 南西面에는 松林이 있었다. 그러나 해방 후 사람의 接近을 막은 결과 소나무는 점차로 사라져 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나무가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을 조금만 눈여겨보면 곧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의 山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거의 모든 산이 참나무숲으로 덮일 것이다.

光陵에서 소나무와 참나무의 生態를 調査한 바에 의하면 松林에서는 1년에 떨어지는 落葉의 總生産量이 2,730파운드/헥타, 참나무숲에서는 3,067파운드/헥타에 달한다. 이러한 落葉이 99%씩는데 걸리는 시간은 소나무숲에서는 38.4年, 참나무숲에서는 17.9年이었다. 따라서 토양으로 되돌아가는 무기양분의 양도 두 숲에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위의 調査에 의하여 우리나라 참나무숲에서는 많은 落葉이 떨어지며 그것이 빨리 分解되어 많은 양분을 토양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토양이 그만큼 더 비옥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참나무숲은 빨리 어울려져서 소나무를 압도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기후 하에서는 참나무가 소나무보다 더 잘 자라서 온 山野를 덮을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자연히 땅도 기름지게 되고 농사도 잘되어 해마다 풍년을 노래하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에 더하여 참나무숲에서 풍기는 新綠의 아련

한 맛, 여름의 싱싱한 내음,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을 어찌 소나무가 따를 수 있겠는가.

독일에서는 소나무를 위시한 가문비나무, 전나무 등의 針葉樹林이 1년 내내 거스름한 색깔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들을 검은 숲(Schwargwald)이라고 부르는데, 筆者가 만난 한 林學者는 이같은 색깔에 실증이나서 앞으로는 계절에 따라 모습과 색깔을 달리하는 참나무숲으로 바꿀 작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의 自然觀

우리나라는 몬순(Monsoon)지역에 위치하므로 여름철에는 하루에 300~500mm나 쏟아지는 무서운 소나기가 있는가 하면 6, 7, 8월의 3개월 간에 年 降雨量 1,200~1,300mm의 50~60%나 되는 많은 비가 내린다. 그 대신 10월부터 4월까지의 몹시 건조하고, 12, 1, 2월의 3개월은 몹시 추워서 서울의 1월의 平均氣溫은 -5℃이나 여름(7월)의 평균기온은 25℃나 되므로 寒暑의 차는 30℃나 된다. 이것을 서울보다 위도상으로 약 15°나 北 쪽에 있는 영국의 런던과 비교하면 런던의 1월의 평균기온이 5℃가량이고 7월의 평균기온과는 불과 12℃가량의 차 밖에 나지 않는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얼마나 한서의 차가 심한 大陸性 氣候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여름철의 豪雨는 가뭄이나 혈벗은 江山을 더욱 거칠게 만들었고, 高溫 多濕의 風土에 적합한 벼농사만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米穀 單一作物의 농업구조는 無計劃한 人口增加와 아울러 때로는 심한 식량 부족을 가져왔던 것이다.

이러한 더위와 추위는 무서운 힘으로 人間을 엄습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 현상에 대한 對抗을 단념 시키고, 無力化 시키고 말았다. 그래서 사람을 자연에 忍從하도록 만

들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몬순지역의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연에 대하여 受容的, 忍從的이라고 말할 수 있다.

風土에서 오는 이러한 수용적, 인종적 성격은 오랫동안의 왜구의 침입, 外敵에 의한 被支配, 李朝以後의 극심한 민중에 대한 苛斂誅求에 의하여 우리는 유약한 성격을 지닌 국민이 되었고, 그리하여 자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정복하려는 의도를 갖지 못함으로써 자연과 멀어지고 말았다.

특히 生活의 터전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토양은 全國土의 2/3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花崗岩과 片麻岩 같은 酸性岩에서 유래한 산성이 강한 砂質土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서 水分과 양분을 保有하는 힘이 약한 편이다. 그래서 해방 후 40년 동안 해마다 나무심기를 장려하여 왔지만 山에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는 것은 토양이 메마른 것에 그 한 원인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염동의 흑한은 많은 燃料를 필요로 하게 하며, 따라서 마구 나무를 베고 落葉과 下草를 긁어가게 되어 山地는 荒廢하고 表土가 노출되어 황량한 인상을 풍기었던 것이다.

이러한 外的 條件은 人間 生活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심한 暴雨와 모진 추위를 막아내기 위하여 굽은 기둥, 두툼한 돌담, 높다란 大門으로 집을 막아서 家屋이 開放的이 못되고, 閉鎖的이며 防禦的이다. 집 안에서 마음껏 休息을 즐길 수 있지만 일단 大門을 나서면 남을 경계하여야 한다. 유럽의 집은 거의 울타리나 담이 없고 구획을 알릴 정도의 것에 불과하며, 우리의 집에 해당하는 것은 城廓이라고 할 수 있다.

집 안이라는 좁은 世界에서만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으며, 집을 나오면 어떤 不安을 느낀다. 유럽의 城廓이 공동의 적에 대항하기 위하여 서로 단결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하는 것을 生活의 基調로 삼아 온

것에 비하여 우리는 집안만이 공동이고 집 밖은 곧 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집 밖의 것에 대하여 아끼고 가꿀 줄을 몰랐던 것이다.

우리의 倫理觀

우리는 자기 울타리 밖은 나와는 관계 없는 남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의 쓰레기를 남의 집 앞에 내다 버리며, 담배꽁초를 길가에 아무 거리낌 없이 버린다. 산에서 나무를 해 온다는 것은 조금도 거리낄 것이 못되며 工場의 廢水를 下水道로 흘려버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먼저 이웃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認識하고 남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社會倫理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倫理觀이 서지 못한 社會에서는 自然을 아끼고 보호한다는 일은 成立될 수 없다. 우리는 아직도 祖上을 崇拜하는 마음은 강하여 祖上의 무덤으로 侵入하는 아까시나무를 사정없이 베어 버리고 뿌리채 뽑아 버린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까시나무에 대하여 再考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人家 근처의 헐벗은 곳에는 심지어 많은 아까시나무가 훌륭한 숲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아까시나무는 뿌리를 빨리 퍼뜨려 森林更新에 優位를 차지하는 叢科植物로 壽命이 짧은 것이 흠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은 잎을 달고 있으며, 空中 질소를 고정하여 양분을 많이 땅 속에 간직하므로 그에 의한 양분의 급속한 증가는 森林을 伐採한 뒤에도 토양으로부터의 양분의 流失을 最少限으로 막는데 기여하고 있다. Boring과 Swank (1984)에 의하면 4년된 아까시나무 林地에서 헥타당 年 30kg의 질소를 고정하였다는 것이다. 아까시나무의 이와같은 질소 고정 능력과 여러가지 林產物을 生産한다는 것은

美國에서 가장 잘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二次 천이에서 질소를 고정하는 아까시나무가 빨리 자라서 양분을 조직 속에 축적하여 生態系에 질소의 有效度를 증대시키는 중대한 종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이 식물은 미국에서 砂防工事와 鑛山表土의 改善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1600年初에 아까시나무의 종자가 불란서에 수입되고, 그로부터 전 유럽, 蘇聯, 韓國, 中國에 導入되어 널리 심어지게 되어, 이제는 百萬헥타 이상의 아까시나무 植林이 이루어졌으며 闊葉樹 중 유카리 다음으로 넓은 植栽面積을 가지고 있다. 아까시나무는 平板, 建築用 널판지, 火木, 울타리, 가축의 사료, 蜜源 등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다. 이와같이 넓은 分布를 가지며 經濟的으로 중요한 樹種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그의 生態와 生産性을 이해하려 들지 않고, 田畠과 무덤에 侵入하는 나쁜 나무라고 하여 천시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Boring과 Swank는 미국에서 山林이 伐採된 곳에 再生하는 아까시나무의 Biomass와 질소고정 능력을, 總生物量은 참나무의 그것보다 2배나 많고, 질소량은 80%나 더 많았다는 것이다. 아까시나무는 伐採된 곳, 버려진 풀밭, 파괴된 길옆에서 가장 우세하게 자라며, 불탄 곳에 먼저 침입하는 重要的 開拓者로서 일단 定着하면 뿌리와 그루터기에서 싹이 터 나와서 재빨리 再生하여 3년에 8m나 자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까시나무는 壽命이 짧지만 질소의 축적을 증가시키고, 일찌감치 樹冠에 간극을 형성하여 숲의 成長과 遷移를 良好하게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특성은 우리나라의 人家 근처의 荒廢한 곳에서 왕성한 성장을 누리게 되는 근본이 되며, 다음에 오는 樹種에 좋은 발판을 마련해 주므로 아까시나무는 荒廢한 곳의 先驅種으로 장려하여야 할 우수한 나무라고 할 수 있다. □

〈論說〉 우리나라 自然保存의 過去와 未來

靑少年問題와 自然教育

崔 基 哲

서울大學校 名譽教授

靑少年 問題가 重大한 社會 問題로 登場하게 된 것은 어제 오늘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또 우리 나라에 局限된 問題도 아니다. 靑少年 善導에는 두 가지 面이 있다. 靑少年들의 善行을 浮刻시켜서 올바른 일을 積極的으로 實踐하게 하는 것이 하나이고, 이미 빗나간 靑少年들을 正常人으로 復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하나의 面이다.

自然教育을 通해서 靑少年 善導가 可能하겠는가? 可能하다면 어느 程度인가? 어떤 方法으로 實施하면 되겠는가? 이것이 오늘의 問題이다.

慾 望 慶尙南道 南海郡 三東面에는 三花川이라고 부르는 小河川이 흐르고 있다. 錦山에서 發源하여 北行한 후, 바다로 流入된다. 全長 10km 内外 밖에 되지 않는 小河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섬을 흐르는 河川으로는 긴 편이다. 現地를 踏査하기 까지, 筆者는 이 小河川에 關하여 적지 않은 期待를 걸고 있었다. 버들치는 말할 것도 없고, 무태장어, 꺾저기 등 淡水魚 分布上 크게 問題가 되는 種들도 나올 것이라고 豫想을 하고 있었다.

筆者는 이 개울을 三東面에 있는 內山國民學校 옆에서 처음 보았다. 三花川의 上流 區域이었다. 1級水나 2級水가 아니면 살지 못하는 갈겨니가 優勢種으로 存在하면서

도 期待했던 버들치는 한마리도 볼 수 없었다. 갈겨니는 없더라도 버들치는 있을 것이라고 보았던 筆者의 期待는 빗나가고 말았다. 그것은 正常的인 分布相은 아니다. 장마, 洪水, 魔의 큰물, 그것들이 버들치를 모조리 쓸어버린 것이다. 바다에까지 밀어부쳐서 水葬을 하고 만 것이다. 智異山 피아골에서 버들치를 쓸어버린 것과 같은 手法이다. 洪水의 이런 暴惡은 錦山の 숲을 濫伐한 데에서 온 것이다. 벌거숭이가 된 錦山을 보면서 그렇게 判斷했다. 이 事實을 確認하기 위해서 三花川의 中流에 걸려 있는 鳳花橋를 찾았다. 네가지 事實이 드러났다. 첫째는, 미유기, 눈동자개, 쉬리가 이곳에서 採集되었다는 事實이다. 이 3種이 三花川에서 採集되었다는 것은 特記할 價値가 있는 事實이다. 3種은 모두 韓國 特産種이다. 우리의 內陸에서는 흔한 種들이지만 이웃의 中國이나 日本에서는 產出되지 않는다. 1萬餘年前까지도 三國은 陸地로 서로 連結되어 있었으므로 上記한 3種이 南海島에 棲息하고 있다는 것은 中·日 兩國이 우리의 疆土에서 떨어져나간 후에 뒤늦게 分離되었다는 것을 間接的으로 立證하는 것이다.

둘째, 鳳花橋에서 만난 한 古老로부터 10餘年 前까지도 버들치와 꺾저기가 살고 있었다는 重要한 情報을 얻은 것이다. 버들치가 있었다는 것은 當然하다고 하겠지만 꺾저기가 살고 있었다는 것은 크게 注目되는

※ 本稿는 '86. 2. 27~28일에 걸쳐 실시된 全國 自然學習園 및 心身修鍊場 教官 教育時 講義된 內容을 轉載한 것입니다(編輯者).

事實이다. 왜냐하면 걱저기는 우리나라의 경우 洛東江과 耽津江과 巨濟島에서 살고있고 日本의 一部에서도 産出되고 있어서 지난 날에는 우리의 國土와 日本이 連結되어 있었다는 것을 間接的으로 立證하는 것이다.

세째는, 鳳花橋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을 程度로 堅固했다는 것이다. 이는 古老의 말에 따르면 每年 洪水가 나면 流失되어, 그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는 平常時에는 想像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洪水의 威力이 얼마나 커서 이런 堅固한 다리가 流失될까?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네째는, 鳳花橋上에서 본 護岸工事의 壯觀이었다. 이 다리에서 시작해서 三花川의 河口에 이르기까지 雄壯한 堤防을 兩岸에 構築하고 있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洪水 때에 물의 汎濫을 막아 周邊의 平野를 保護하기 위한 것이다. 이 거창한 堤防도 每年 터져서 農民들에게 큰 被害를 입힌다는 古老의 말에는 啞然失色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무서운 洪水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냐고 물었을 때, 古老는 分明히 대답했다. 錦山の 울창한 숲을 伐採한 後 부터라고, 錦山の 숲은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을 때, 山主의 숲이라고 원망하는 눈초리였다.

文明人 錦山을 보았다. 內山에서도 보았고, 鳳花橋上에서도 보았다. 벌거숭이, 徹底한 濫伐, 저렇게까지 산을 벗길 수 있을까?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울창한 숲이 있을 것을 期待했던 筆者의 꿈은 霧散되고 말았다. 傾斜度 30° 以上 되는 산을 덮은 숲을 伐採하다니…… 教科書에도 없는 짓을 했다고 山主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경우, 山主는 숲의 所有主로서 合法的으로 權利를 行使한 것이므로 아무도 抗議를 할 수 없다. 더구나 山林伐採에서 얻어지는 經濟性을 생각할 때, 山

主의 이 當然한 權利行使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 경우에 그 經濟性이라는 것을 分析해 볼 必要가 있다. 森林 伐採에 따르는 錦山の 保水力 不足이 洪水의 被害를 招來한 根據가 된다는 것이 分明해진다면 山主는 洪水로 입은 모든 被害를 補償하겠는가? 貴重한 學術 資源의 損失은 무슨 方法으로 補償하겠는가? 年中行事처럼 되어 있는 鳳花橋의 流失을 언제까지 補償하겠는가? 農作物의 被害까지도 補償할 수 있겠는가? 이 경우, 山主만 保護하고 橋梁 架設者, 堤防 構築者, 農民에게는 아무 惠澤도 주지 않는다면 法 自體가 不公平하다는 非難을 모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에 眞正한 經濟性을 分析할 수 있는 有能한 人士가 있어서 收支를 算出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40年마다 한번씩 山林을 伐採해서 얻어지는 所得을 한 쪽에 놓는다. 다른 쪽에는 40年間에 일어나는 橋梁 架設費, 堤防 修理費, 農民들의 被害 補償費를 計算해서 兩 쪽을 比較해 보면 어떻게 되겠는가? 만일 山林에서 오는 所得보다 다른 쪽의 額數가 더 크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山林 伐採에 따르는 沙汰나 河川이나 海洋에 流入되는 營養鹽類의 減少까지 收支 計算에 添加한다면 兩者의 差異는 더욱 커질 것이 아닌가? 이 때문에 生態學 教科書에는 傾斜度 30° 以上되는 山林은 自然林을 그대로 原始林으로 育林하는 것이 有利하다고 敎示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경우에 만일 鳳花橋보다 上流 쪽에 洪水를 調整하고 가뭄을 克服할 수 있는 全天候的 貯水池를 築造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적어도 鳳花橋의 流失과 堤防의 崩壞를 막을 수 있고 農民들에 대한 補償問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國民들이 納付한 税金을 이 경우, 산을 購入하고 貯水池를 構築하는 데 使用했다고 해서 不平을 말할 사람

은 없을 것이다. 이와같이 高次元의인 立場에서 國家나 民族이나 社會를 爲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未開人들과 區別해서 文明人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三花川과 類似한 例들이 到處에 있다. 억울하게 물난리를 겪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豫期하지 못했던 山沙汰를 만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팔자에도 없는 가뭄에 시달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비싼 값까지 치러가며, 凍土地帶를 만들어 내는 일은 없는가?

自然을 愛護하고 自然의 惠澤에 感謝하며 自然을 알기 위하여 心血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모두가 自然의 管理 잘못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觀點에서 볼 때, 한 國家나 民族의 存立에는 自然을 保護하는 많은 文明人을 必要로 한다.

靑少年 善導의 本質的 立場을 생각할 때 그들을 文明人의 規範 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겠는가?

自然 愛護家들은 自然을 통해서 靑少年들의 情緒 生活을 豐饒하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自然을 통해서 無限한 忍耐力과 秩序 意識을 涵養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自然을 통해서 心身을 鍛鍊할 수 있고 協同心을 涵養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價値觀을 定立하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렇다면, 自然과 文明人의 規範, 그 언저리에 靑少年 善導의 基盤을 튼튼하게 다질 수 있지 않겠는가?

自 然 自然學習園에서 自然을 본다. 거기에는 汚染되지 않은 空氣가 充滿되어 있다. 거기에는 거울같이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 人類가 地球上에 나타난 후, 百萬年 이상이나 숨쉬고 있는 바로 그 空氣이고 마시고 있는 바로 그 물이다. 거기에는 흙이 있고 岩石이 말 없이 버티고 있다. 人類가 太古적부터 依支해 온 바로 그 흙이고 그 岩

石이다. 거기에는 많은 植物이 자라고 있다. 陸上에도 水中에도 살고 있다. 植物은 一般的으로 葉綠素를 지니고 있어서 물이나 二酸化炭素(CO₂)와 같은 無機物을 合成할 수 있다. 그래서 生産者라고 부르고 있다.

거기에는 많은 動物들도 살고 있다. 숲 속에도 흙 속에도 動物이 살고 있다. 짐승이나 새나 昆蟲은 土壤 속에서 生을 누리고 있다. 물 속에도 動物은 살고 있다. 물고기나 昆蟲의 幼蟲, 甲殼類 등이 바로 그것이다. 動物은 植物처럼 無機物을 原料로 써서 有機物을 合成하는 能力은 없다. 그러나 直接・間接으로 植物을 攝取하면 自身들의 生物體로 同化할 수는 있다. 이런 動物들은 生産者에 대하여 消費者라고 부른다. 버섯도 消費者에 屬한다.

한편, 生産者나 消費者가 죽으면 그 死體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分解된다. 生産者인 植物이 養分으로 吸收할 수 있는 無機物로 分解된다. 이런 일을 하는 生物은 곰팡이나 박테리아 등이다. 이들 生物을 分解者라고 부른다. 以上과 같이 自然은 無生物과 生物로 構成되고, 生物에는 生産者와 消費者와 分解者가 있다.

自然은 固定的인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變化하고 있다. 昨年の 그것과 今年の 그것이 다르고, 어제의 그것과 오늘의 그것이 다르다. 얼른 보면 靜的인 것처럼 보이지만 實은 動的인 것이다.

自然에서는 物質이 循環하고 에너지가 흐른다. 生物이 必要로 하는 物質은 무엇이든지 生産者에서 消費者로 消費者에서 分解者로, 分解者에서 生産者로 循環한다. 一定한 量이 一定한 速度로 循環할 때 自然은 平衡이 維持된다. 生物이 必要로 하는 에너지는 太陽에서 온다. 먼저 生産者가 받아 消費者로 흘러간다. 그러나 物質의 경우처럼 循環하지는 않고 一方的으로 흐른다. 에너지의 一定量이 一定한 速度로 흐를

때, 自然은 平衡이 維持된다.

自然이 平衡 狀態를 維持하고 있을 때는 自然은 健全하지만 平衡 狀態가 崩壞되면 自然은 破滅된다. 따라서 自然保護 運動의 窮極의 目標은 自然이 平衡 狀態를 維持하게 하자는 것이다. 世界各地, 특히 아프리카 大陸이나 中東地域의 廣闊한 沙漠의 大部分은 自然이 平衡 狀態를 維持할 수 없게 되어 絶滅된 데에서 由來된 것이다. 그와같은 自然 破壞의 大部分이 人間 干涉에서 온 것이라는 데에 問題의 重大性이 內包되어 있다.

自然은 部分的으로 破壞되는 일이 있더라도 스스로 回復할 수 있는 能力이 있다. 이것을 自然의 恒常性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自然에 대한 人間의 지나친 干涉, 例를들면 濫獲, 過牧, 汚染物質의 過度 放出 등으로 自然이 完全히 自制力을 잃게 되면 沙漠으로 轉落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自然도 數次 危機를 맞은 일이 있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19世紀 末에서 20世紀 初에 걸쳐서 겪은 危機였다. 人口의 急激한 膨脹과 燃料 不足으로 山林을 濫伐하게 되어, 많은 野山들이 荒廢化되었다. 이 때문에 洪水의 被害가 極大化되어 山沙汰로 沙漠化가 促進되게 되어 危機를 맞았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砂防工事に 莫大한 豫算과 人力을 投入했던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第二의 危機는 1970年代에 맞았었다. 人口 膨脹과 工業 發展에 따르는 汚染物質의 過度 放出로 水陸이 한꺼번에 危機를 맞았었다. 이 危機는 自然保護 運動으로 現在 克服中에 있다.

自然은 構造面에서 보거나 機能面에서 보거나 엄청나게 複雜한 存在이다. 無生物과 無生物, 生物과 生物, 生物과 無生物, 物質의 循環經路와 速度, 에너지의 流轉經路와 速度 등 어느 하나도 明快하게 短時日에 分

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自然이 複雜하면 할수록 거기에 內在해 있는 原理가 奧妙하면 할수록 그 實相을 알겠다고 挑戰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설레게 할 것이다.

自然은 勇氣있는 挑戰者들의 接近을 頑強히 拒否하는 絶對的인 存在는 아니다. 自然 研究家들을 언제든지 歡迎하는 寬大한 存在이다.

自然學習園을 보자. 숲을 構成하는 많은 樹木 중에 數의으로나 量的으로나 가장 優勢한 種은 무엇인가? 소나무인가? 상수리나무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나무인가? 짐승, 새, 昆蟲, 물고기 各各 優勢種은 무엇인가? 自然學習園에서 큰 影響力을 行使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다. 自然學習園에서 大部分의 物質이 그것들을 통해서 循環되고 있고 大部分의 에너지가 그것들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自然을 愛護하고, 自然을 알려고 하고, 自然을 통해서 靑少年들을 善導하겠다는 人士들은 이들 優勢種의 動態를 凝視하는 데에서부터 活動을 開始하여야 할 것이다.

實 踐 한 人間이 제대로 成長하려면 적어도 세가지 條件이 갖추어져야 한다. 家庭, 學校(또는 職場), 自然의 三者가 그것이다. 溫情의 溫床인 家庭이 없으면 正常的인 成長을 할 수 있겠는가? 父母의 사랑을 받지 못한 적지 않은 靑少年들이 빗나가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의 目標을 向해서 接近하게 하는 學校나 職場을 잃는다면 우리의 靑少年들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들 放浪者들이 바람직한 人材로 成長할 수 있겠는가? 自然을 등지고 사는 靑少年들이 바람직한 價值觀을 定立할 수 있겠는가?

이런 觀點에서 볼 때, 自然學習園에 勤務하는 指導者들은 靑少年 善導의 旗手들

이다. 그들이 가져야 할 姿勢는 어떠한가 하며, 할 일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貴重한 것은 그들의 姿勢이고 信念이다. 自然에 接하게 하고 自然을 알게 하면 靑少年들의 情緒 生活을 豊饒롭게 할 수 있다. 心身을 鍛鍊할 수 있고 協同心과 忍耐力과 秩序 意識을 涵養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價値觀을 定立하게 하여 眞正한 文明人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런 信念이 確立되면 그들이 하는 일은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런 信念을 갖게되면 그들이 할 일은 스스로 定해될 것이다.

첫째, 어떻게 하면 靑少年들이 自然에 接할 수 있는 機會를 많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靑少年들이 自然 속으로 파고 들어가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한 計劃이 樹立되고 實踐에 옮겨져야 한다. 映畫나 슬라이드를 보여줄 時間이 있으면 自然을 보여주라. 새 소리, 바람 소리, 물 소리를 들려주라. 어두운 밤에 그런 소리들을 들려주었을 때, 靑少年들은 무엇이라고 그들의 所感을 말하는가? 그 소리를 들어보라. 그들이 尊敬하는 人士들의 목소리를 錄音으로 들려 주었을 때 그들은 무엇이라고 所感을 말하는가? 그 소리를 들어보라.

둘째, 自然學習園 指導者들은 틈만 있으면 노트를 들고 自然 속에 들어가서 自然을 探究해야 한다.

우선 優勢種부터 把握하여야 한다. 나무의 優勢種은? 풀의 그것은? 짐승, 새, 昆蟲, 물고기의 그것은?

이름보다 相互關係에 置重하라. 어떤 生物이 生産者이고 어떤 生物이 消費者이며, 어떤 生物이 分解者인가? 먹고 먹히는 生物相互關係는 어떠한가? 生物과 無生物의 相互關係는 어떤가?

自然學習園에서도 波動이 일어나는 일이 있는가? 그 波動은 어떻게 해서 가라앉

게 되는가?

自然學習園에서 優勢種으로 存在하고 있는 大型 樹木 세 그루를 伐採하면 어떤 事態가 일어나겠는가?

優勢種으로 存在하는 樹木의 나이를 알고 있는가? 그것을 靑少年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가?

세째는, 三尺童子에게도 배우겠다는 姿勢를 가져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專門學者들의 訪問을 받았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初·中·高等學校 教師들, 靑少年 한 사람 한 사람이 自然에 대하여 斷片的 知識이라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구에게도 배울 수 있지 않겠는가? 筆者는 野外에 나갔을 때, 國民學校 어린이들에게 배운 것이 적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네째, 靑少年 善導의 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 自然學習園에서 어떤 施設을 하고 있는지를 隨時로 點檢해달라는 것을 당부하고 싶다.

心身을 鍛鍊하기 위한 施設은? 協同心과 忍耐力과 秩序意識을 涵養하기 위한 施設은?

다섯째, 自然學習園이 單純한 놀이터가 아나라는 證據가 있는지 檢討해주시기 바란다. 運營面에서 差異가 있는가? 施設面에서 差異가 있는가? 指導者들의 姿勢에 差異가 있는가?

여섯째, 바람직한 靑少年像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靑少年들은 一等を 하겠다고 뛰고 있는데 既成世代는 二等이나 三等を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自然 探究에서 얻은 大哲理가 文明人의 規範을 定立하게 하고 眞正한 文明人만이 理想的인 社會를 建設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우리 自然愛護者들은 現在 靑少年 善導의 旗手로 先頭に 나서야 할 時點에서 있는 것이다. □

報恩・俗離山の 거미相

南宮 煥

서울 麻浦區 上岩洞 711

The Spider Fauna of Mt. Songni, Poŭn-gun, Chŭngchŏngbuk-do, Korea

by

Namkung, Joon

711 Sang-am-dong, Mapo-gu, Seoul, Korea

Abstract

Hitherto only 86 species belonging to 22 families of spiders were reported from Mt. Songni which is a wellknown scenic place in the central inland of Korea.

The author have investigated spider fauna of Mt. Songni, in Po-ŭn-gun, since 1965. The findings were: (1) In this report, 218 species of 122 genera, included 4 undetermined species, belonging to 31 families of spiders have been collected at Mt. Songni. (2) 132 species are added to the fauna, of which two unreported species in Korea, i. e. *Crustulina guttata* (Wider, 1834), *Neon reticulatus* (Blackwall, 1853). (3) The spider fauna of Mt. Songni include 35 northern species (13.0%), 5 southern species (2.3%), 5 cosmopolitan species (2.3%) and 169 palaearctic temperate species (79%). (4) The vertical distribution is as follows: 1050~850m-45 species (21.0%), 850~700m-80 species (37.4%), 700~600m-82 species (38.3%), 600~500m-92 species (43.0%) 500~400m-110 species (51.4%). (5) The predominant species of Mt. Songni are Araneidae, Theridiidae, Thomisidae and Salticidae; Linyphiidae and Lycosidae are relatively few in number.

緒 論

俗離山은 韓國八景의 하나로 東經 $127^{\circ}45' \sim 127^{\circ}55'$, 北緯 $36^{\circ}28' \sim 36^{\circ}36'$ 에 立置하며 主峰인 天皇峰(1,057m)을 爲始하여 毘盧峰, 立石臺, 文藏臺, 觀音峰 等 海拔 1,000m 内外의 嶺峰과 幽寂한 溪谷, 鬱蒼한 森林, 古蹟, 宝物, 天然記念物 및 稀貴 動植物 等 豊富한 資源을 간직하고 있어 國立公園으로 指定 保護되고 있다.

內陸 中心部에 位置하고, 峻險한 山峯이 聳立하고 있어 大陸性氣候의 南限界地域을 이루며, 年平均 氣溫 12°C , 濕度 75.2%, 降水量 1,286mm로 植物分布上으로 溫帶 中部에 屬하고 있다.

俗離山の 거미類에 對하여는 森(1930)의 *Atypus* sp. (땅거미의 1종)가 最初의 記錄이고 그 後 白(1965~'79)의 40種, 金(1985)의 45種의 追加가 있어 現在까지 22科 86種이 記錄되고 있다.

筆者는 1965年 4月부터 8月까지 報恩, 俗離山 一圓의 地帶別 거미相 調査를 한 바 있고, 또 1980年 6月과 1982年 6月の 補充調査를 하였기 其間의 採集資料를 整理하여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調査場所 및 日字

調査地域은 高度 層位와 環境區系를 考慮하여 다음의 5 개 地帶로 區分 調査하였다.

A. 山頂·稜線帶 (1,050m~850m)

天皇峰(4, VIII, '65), 文藏臺(16, V, '65; 11, VI, '65), 上庫庵(4, VIII, '65), 자라봉(19, VI, '65).

B. 山中腹帶 (850m~700m)

中獅子庵(11, VI, '65; 8, VIII, '65), 慶業臺(5, VIII, '65), 新隱瀑洞(19, VI, '65; 6, VIII, '65), 上歡庵(11, IV, '65; 19, VI, '65; 6, VIII, '65), 隱瀑洞(19, VI, '65; 5, VIII, '65).

C. 山中溪谷帶 (700m~600m)

표고밭(16, V, '65; 5, VIII, '65), 金剛溪(17, V, '65; 5, VIII, '65), 福泉庵(20, VI, '65; 3, VIII, '65)

D. 山麓低山帶 (600m~500m)

沐浴沼(11, V, '65; 17, V, '65; 18, VI, '65; 7, VIII, '65; 30, VI, '80), 脫骨庵(10, IV, '65; 16, V, '65), 南山(3, VIII, '65).

E. 野山平野帶 (500m~400m)

貯水池(6, VIII, '65; 30, VI, '80), 法住寺(16, V, '65; 8, VIII, '65), 葛目(27, VI, '82).

報恩·俗離山 거미目録

目録中에 다음과 같은 略號가 쓰여졌으며, 採集年度와 日字는 紙面關係로 省略하였다.

既報告種: ○표...白('65~'79); △표...金('85)

未記錄種: ※표...韓國未記錄; ⊕표...南韓未記錄

分布:[Pal.]...旧北系; [Hol.]...全北系; [Or.]...東洋區; [Cos.]...汎世界種; [K.]...韓國固有種

A list of spiders from Mt. Songni, Korea

Atypidae Bertkau, 1878 땅거미 과

○*Atypus* sp. 땅거미의 1 종 沐浴沼(1 ♀; V)

Amaurobiidae Thorell, 1870 비탈거미과

Callobius koreanus (Paik, 1966) 반도비탈거미 [K.] 자라봉(2 ♀♀; VI), 新隱瀑洞(1 ♀; VI), 上歡庵(1 ♀; VI).

○*Titanoeca nipponica* Yaginuma, 1959 살깃자갈거미 貯水池(1 ♀; VIII)

Eresidae C. L. Koch, 1850 주홍거미 과

Eresus niger (Petagna, 1787) 주홍거미 [Pal.] 脫骨庵(1 ♂; V)

Dictynidae O.P. Cambridge, 1871 앞거미 과

○*Dictyna felis* Boes. et Str., 1906 앞거미 法住寺(1 ♀; VIII)

Lathys puta (O.P. Cambridge, 1863) 공산마른앞거미 [Pal.] 法住寺(1 ♂; V), 葛目(2 ♂♂; VI)

Uloboridae O.P. Cambridge, 1871 응달거미 과

Hyptiotes affinis Boes. et Str., 1906 부채거미 天皇峰(1 ♂; VIII), 金剛溪(1 ♂; VIII), 沐浴沼(4 ♂♂; VIII), 南山(2 ♂♂, 2 ♀♀; VIII), 貯水池(4 ♂♂; VIII), 法住寺(5 ♂♂; VIII)

○*Miagrammopes orientalis* Boes. et Str., 1906 손깃거미 자라봉(1 ♀; VI), 上歡庵(2 ♂♂; VI), 福泉庵(5 ♂♂; VI), 沐浴沼(2 ♂♂; VI)

- Uloborus prominens* Boes. et Str., 1906 왕관응달거미 金剛溪(1♀; Ⅶ), 福泉庵(1♂, 2♀♀; Ⅵ), 沐浴沼(2♂♂, 5♀♀; V), 南山(1♀; Ⅶ).
- Uloborus sybotides* Boes. et Str., 1906 곱추응달거미 天皇峰(2♀♀; Ⅶ), 文藏臺(1♀; V), 자라봉(2♀♀; Ⅵ), 上歡庵(5♂♂, 2♀♀; Ⅵ), 隱瀑洞(2♀♀; Ⅵ), 貯水池(2♀♀; Ⅵ).
- Uloborus varians* Boes. et Str., 1906 울도응달거미 文藏臺(1♀; V)
- Uloborus walckenaerius* Latreille, 1806 유럽응달거미 [Pal.] 法住寺(1♀; Ⅵ)
- Leptonetidae Simon, 1890 잔나비거미 과**
- Leptoneta* sp. 잔나비거미의 1종 文藏臺(1♀; V), 中獅子庵(3♂♂, 1♀; Ⅶ), 上歡庵(2♂♂, 2♀♀; Ⅵ), 표고밭(3♀♀; Ⅶ), 福泉庵(2♂♂, 5♀♀; Ⅳ), 脫骨庵(2♂♂, 3♀♀; Ⅳ), 沐浴沼(3♂♂, 2♀♀; V).
- Scytodidae Blackwall, 1852 가죽거미 과**
- Scytodes thoracica* (Latreille, 1804) 아롱가죽거미 [Cos.] 法住寺(1♀; Ⅶ)
- Pholcidae C. L. Koch, 1850 유령거미 과**
- Pholcus acutulus* Paik, 1978 목이유령거미 [K.] 天皇峰(1♀; Ⅶ), 자라봉(1♀; Ⅵ), 上歡庵(1♀; Ⅵ), 金剛溪(1♀; Ⅶ), 隱瀑洞(1♂, 1♀; Ⅶ)
- Pholcus crypticolens* Boes. et Str., 1906 산유령거미 上歡庵(1♂, 1♀; Ⅵ)
- Pholcus opilionoides* (Schranck, 1781) 대룩유령거미 福泉庵(1♂; Ⅶ), 脫骨庵(1♂, 3♀♀; V)
- Pholcus sokkrisanensis* Paik, 1978 속리유령거미 [K.] 中獅子庵(2♀♀; Ⅶ), 上歡庵(2♀♀; Ⅶ), 표고밭(1♂; Ⅶ), 金剛溪(1♀; Ⅶ), 福泉庵(1♂, 2♀♀; Ⅵ), 南山(1♀; Ⅶ).
- Theridiidae Sundevall, 1833 꼬마거미 과**
- Achaearanea angulithorax* (Boes. et Str., 1906) 종꼬마거미 上歡庵(1♂, 2♀♀; Ⅵ)
- Achaearanea lunata* (Clerck, 1758) 대룩꼬마거미 [Hol.] 天皇峰(1♀; Ⅶ)
- Achaearanea tepidarium* (C. Koch, 1841) 말꼬마거미 [Cos.] 天皇峰(2♂♂, 2♀♀; Ⅶ), 표고밭(1♂, 1♀; Ⅶ), 南山(1♀; Ⅶ)
- △*Anelosimus crassipes* (Boes. et Str., 1906) 잎무늬꼬마거미 貯水池(5♀♀; Ⅵ), 葛目(1♀; Ⅵ), *Argyrodes fur* Boes. et Str., 1906 안장더부살이거미 福泉庵(1♀; Ⅵ), 貯水池(1♀; Ⅶ), 法住寺(1♀; Ⅶ)
- Argyrodes saganus* (Doen. et Str., 1906) 창거미 文藏臺(1♀; V), 新隱瀑洞(1♂; Ⅵ), 金剛溪(1♀; Ⅶ), 福泉庵(1♂; Ⅵ),
- Ariamnes cylindrogaster* Simon, 1888 꼬리거미 天皇峰(2♀♀; Ⅶ), 中獅子庵(1♀; Ⅶ), 上歡庵(1♀; Ⅶ), 표고밭(2♀♀; V), 福泉庵(1♂, 1♀; Ⅵ), 貯水池(1♀; Ⅵ), 法住寺(5♀♀, Ⅶ)
- Chrysso punctifera* (Yaginuma, 1960) 벌연두꼬마거미 中獅子庵(1♀; Ⅶ), 上庫庵(1♀; Ⅵ), 자라봉(1♀; Ⅵ), 新隱瀑洞(1♀; Ⅵ), 上歡庵(2♀♀; Ⅵ)
- Comaroma maculosum* Oi, 1960 갑옷꼬마거미 沐浴沼(2♂♂, 2♀♀; V), 脫骨庵(1♂, 1♀; Ⅳ), 葛目(1♀; Ⅵ)
- ※*Crustulina guttata* (Wider, 1834) 점박이사마귀꼬마거미 (新称) 貯水池(1♂; Ⅵ)
- △*Dipoena castrata* Boes. et Str., 1906 검정미진거미 福泉庵(1♂, 1♀; Ⅵ), 脫骨庵(1♀; Ⅳ), 葛目(1♂; Ⅵ).
- △*Dipoena mustelina* (Simon, 1888) 게꼬마거미 자라봉(3♀♀; Ⅵ), 新隱瀑洞(1♂; Ⅵ), 福泉庵(1♂, 2♀♀; Ⅵ), 沐浴沼(2♀♀; Ⅵ), 脫骨庵(4♀♀; Ⅳ)
- △*Episinus affinis* Boes. et Str., 1906 빨마름모거미 上歡庵(1♀; Ⅵ)
- Episinus caudifer* (Boes. et Str., 1906) 긴마름모거미 福泉庵(1♂; Ⅵ).
- Episinus nubilus* Yaginuma, 1960 민마름모거미 上歡庵(1♀; Ⅵ), 福泉庵(1♀; Ⅵ), 沐浴沼(2♂♂; Ⅵ)

- Phoroncidia pilula* (Karsch, 1879) 흑부리꼬마거미 福泉庵(1♂; VI), 沐浴沼(1♀; VI),
Stemmops nipponicus Yaginuma, 1969 먹눈꼬마거미 脫骨庵(1♂; IV)
Theridion japonicum Boes. et Str., 1906 점박이꼬마거미 표고밭(2♀♀; VII)
Theridion kompirense Boes. et Str., 1906 석점박이꼬마거미 中獅子庵(3♀♀; VII)
 △*Theridion latifolium* Yaginuma, 1960 넓은앞꼬마거미 沐浴沼(2♀♀; VI), 法住寺(3♂♂, 1♀; V), 葛目(2♀♀; VI)
 △*Theridion pinastri* L. Koch, 1872 등줄꼬마거미 [Pal.] 新隱瀑洞(1♂; VI), 沐浴沼(2♂♂, 4♀♀; VI), 葛目(4♂♂, 3♀♀; VI)
Theridion rapulum Yaginuma, 1960 삼각점꼬마거미 貯水池(1♀; VI), 沐浴沼(1♂; V)
 △*Theridion sternotatum* Boes. et Str., 1906 살벌꼬마거미 新隱瀑洞(1♀; VI), 法住寺(1♀; V) 葛目(1♀; VI)
 △*Theridion subadultum* Boes. et Str., 1906 이끼꼬마거미 자라봉(1♂; VI), 上歡庵(1♂; VI), 葛目(2♀♀; VI)
Theridion subpallens Boes. et Str., 1906 회색꼬마거미 福泉庵(1♀; VI), 沐浴沼(1♀; VI)
 △*Theridion takayense* Saito, 1939 넉점꼬마거미 上歡庵(6♂♂; VI), 南山(1♀; VII), 葛目(1♀; VI)
Nesticidae Dahl, 1926 굴아기거미 과
Nesticus sp. 굴아기거미의 1종 표고밭(3♀♀; VI), 福泉庵(1♀; VI), 南山(1♂, 3♀♀; VII)
Linyphiidae Blackwall, 1859 접시거미 과
Arcuphantes scitulus Paik, 1974 까막나사접시거미 [K.] 上歡庵(1♂; VI; 1♀; VII), 隱瀑洞(1♂, 3♀♀; VI), 표고밭(4♀♀; V), 福泉庵(1♀; VI), 沐浴沼(1♂, 1♀; VII), 南山(2♀♀; VII)
Centromerus kayaensis Paik, 1965 가야접시거미 [K.] 沐浴沼; V).
Doenitzius parvus Oi, 1960 땅접시거미 上歡庵(4♀♀; IV)
Lepthyphantes nasus Paik, 1965 코접시거미 [K.] 上歡庵(2♀♀; IV; 1♀; VI), 福泉庵(2♀♀; IV; 3♀♀; V).
Meioneta oblique Oi, 1960 옆꼬마접시거미 沐浴沼(1♀; V)
Neriere clathrata (Sundevall, 1829) 십자접시거미 [Hol.] 文藏臺(2♂♂; V), 新隱瀑洞(2♀♀; VI), 上歡庵(2♀♀; VI), 貯水池(1♀; VI)
 ○*Neriere emphana* (Walckenaer, 1841) 대륙접시거미 [Pal.] 中獅子庵(1♂, 2♀♀; VII), 慶業臺(3♂♂; VII), 上歡庵(1♀; VII), 葛目(1♂; VI)
Neriere japonica (Oi, 1960) 가시접시거미 法住寺(1♀; VII).
 △*Neriere limbatinella* (Boes. et Str., 1906) 쌍줄접시거미 上歡庵(1♂; VII), 葛目(1♀; VI)
 ○*Neriere longipedella* (Boes. et Str., 1906) 농발접시거미 上歡庵(2♂♂; VII), 표고밭(2♂♂; VII), 法住寺(3♂♂, 1♀; VII).
 ○*Neriere nigripectoris* (Oi, 1960) 검정접시거미 자라봉(3♀♀; V), 新隱瀑洞(4♂♂; VI), 표고밭(2♂♂, 1♀; V), 沐浴沼(2♀♀; VI), 法住寺(1♀; VII), 葛目(2♂♂, 2♀♀; VI)
 ○*Neriere oidedicata* Helsdingen, 1969 고무레접시거미 [Hol.] 法住寺(1♀; VII)
 ○*Neriere radiata* (Walckenaer, 1841) 테두리접시거미 [Hol.] 南山(1♀; VII), 脫骨庵(1♂; V), 隱瀑洞(1♀; VI).
Strandella pargongensis (Paik, 1965) 팔공접시거미 [K.] 자라봉(7♀♀; VI)
Tapinopa bucculenta (Clerck, 1758) 꽃접시거미 [Pal.] 天皇峰(1♀; VII)
Erigonidae Gerhardt, 1923 애접시거미 과
Diplocephaloides saganus (Boes. et Str., 1906) 흰배애접시거미 자라봉(1♀; VII).
 △*Erigonidium graminicola* (Sundevall, 1829) 흑갈풀애접시거미 [Pal.] 葛目(1♀; VI)
Gnathonarium exsciccatum (Boes. et Str., 1906) 황갈애접시거미 [Pal.] 脫骨庵(1♀; IV), (沐

浴沼(1♀; V)

Gonatium arimaense Oi, 1960 황적가시다리애접시거미 표고밭(1♀; V), 法住寺(1♀; V)

Gonatium japonicum Simon, 1894 왜가시다리애접시거미 葛目(1♀; VI)

Nematogmus sanguinolentus (Walckenaer, 1837) 앵도애접시거미 [Cos.] 脱骨庵(1♀; V), 金剛溪(1♀; V)

Oedothorax insecticeps Boes. et Str., 1906 등줄가슴거미 貯水池(1♀; VI)

Mimetidae Simon, 1890 해방거미 과

○ *Ero japonica* Boes. et Str., 1906 뿔해방거미 福泉庵(1♀; VI), 南山(1♀; VII)

Ero koreana Paik, 1967 민해방거미 [K.] 上歡庵(1♀; VI: 1♀; VII), 福泉庵(1♀; VII)

○ *Mimetus testaceus* Yaginuma, 1960 큰해방거미 脱骨庵(1♀; V), 葛目(1♂; VI)

Anapidae Simon, 1895 도토리거미 과

Conoculus simboggulensis Paik, 1971 도토리거미 [K.] 新隱瀑洞(1♂, 1♀; VI: 4♂♂, 7♀♀; VII), 沐浴沼(1♀; VI)

Araneidae Dahl, 1912 왕거미 과

Araneus ishikawai Kishida, 1928 부석왕거미 天皇峰(1♂, 3♀♀; VII), 上庫庵(1♀; VII), 中獅子庵(1♀; VII), 慶業臺(1♂, 1♀; VII), 上歡庵(1♀; VII), 金剛溪(1♂; VII)

Araneus lugubris (Walckenaer, 1841) 적갈여리왕거미 [Or.] 法住寺(1♀; VII)

△ *Araneus semilunaris* (Karsch, 1879) 삼각무늬왕거미 南山(1♀; VII)

Araneus tsuno Yaginuma, 1972 뿔왕거미 沐浴沼(1♀; VI)

Araneus ventricosus (L. Koch, 1878) 산왕거미 法住寺(1♀; VII), 脱骨庵(1♂; V)

△ *Araneus viperifer* Schenkel, 1963 당왕거미 南山(2♂♂, 1♀; VII), 葛目(2♀♀; VI)

Araniella cucurbitina (Clerck, 1758) 꽃왕거미 [Hol.] 文藏臺(1♀; V)

Araniella displicata (Hentz, 1847) 육점박이왕거미 [Hol.] 沐浴沼(1♀; VI)

△ *Argiope bruennichii* (Scopoli, 1772) 긴호랑거미 [Pal.] 中獅子庵(1♀; VII), 貯水池(1♂; VII), 法住寺(1♂, 1♀; VII)

Argiope minuta Karsch, 1879 꼬마호랑거미 法住寺(1♀; VI)

△ *Chorizopes nipponicus* Yaginuma, 1963 머리왕거미 南山(1♂; VII), 法住寺(1♀; VII), 葛目(2♀♀; VI)

Cyclosa argenteoalba Boes. et Str., 1906 은먼지거미 新隱瀑洞(2♂♂; VI), 福泉庵(1♂; VI)

Cyclosa atrata Boes. et Str., 1906 울도먼지거미 金剛溪(1♀; VII)

Cyclosa ginnaga Yaginuma, 1959 장은먼지거미 中獅子庵(1♀; VII), 慶業臺(3♀♀; VII), 金剛溪(2♀♀; VII), 福泉庵(2♀♀; VI)

Cyclosa japonica Boes. et Str., 1906 天皇峰(2♀♀; VII), 표고밭(2♀♀; VII), 金剛溪(2♀♀; VII)

Cyclosa laticauda Boes. et Str., 1906 여섯흑먼지거미 沐浴沼(1♀; V)

Cyclosa monticola Boes. et Str., 1906 셋흑먼지거미 脱骨庵(1♀; V), 沐浴沼(1♀; VI)

Cyclosa octotuberculata Karsch, 1879 여덟흑먼지거미 新隱瀑洞(1♀; VI), 南山(1♀; VII), 法住寺(1♀; VII)

Cyclosa sedeculata Karsch, 1879 넷흑먼지거미 天皇峰(1♀; VII), 中獅子庵(2♀♀; VII), 新隱瀑洞(2♀♀; VII), 福泉庵(1♀; VI)

Cyrtarachne inaequalis Thorell, 1895 큰새똥거미 [Or.] 貯水池(1♀; VII)

Gasteracantha kuhlii C. Koch, 1838 가시거미 [Or.] 慶業臺(1♀; VII), 南山(1♀; VII), 貯水池(1♀; VII)

Hypsosinga sanguinea (C. Koch, 1845) 산짜애왕거미 [Pal.] 표고밭(1♀; V)

Larinia argiopiformis Boes. et Str., 1906 어리호랑거미 法住寺(1♀; VII), 貯水池(1♀; VII)

- Mangora herbeoides* (Boes. et Str 1906) 커털거미 文藏臺(5♀; V), 貯水池(2♀; VI)
Meta kompirensis Boes. et Str., 1906 병무늬왕거미 표고밭(3♀; VII), 金剛溪(2♀; VII),
 法住寺(4♀; VII)
Meta menardi (Latreille, 1804) 굴왕거미 [Hol] 新隱瀑洞(2♀; VI; 3♀; VII), 脫骨庵(2♀; IV)
Meta reticuloides Yaginuma, 1958 민무늬왕거미 金剛溪(1♀; V), 표고밭(1♀; V)
Meta yunohamensis Boes. et Str., 1906 안경무늬왕거미 隱瀑洞(3♀; VI), 金剛溪(1♀; VII),
 沐浴沼(1♂, 2♀; V)
Neoscona adiantum (Walckenaer, 1802) 작시어리왕거미 [Pal] 貯水池(1♂; VII)
Neoscona doenitzi (Boes. et Str., 1906) 들어리왕거미 中獅子庵(1♂, 3♀; VII).
Neoscona fuscocolorata (Boes. et Str., 1906) 먹왕거미 文藏臺(1♀; V), 표고밭(2♀; V),
 沐浴沼(1♀; V), 南山(1♂, 1♀; VII)
Neoscona mellottei (Simon, 1895) 점연두어리왕거미 法住寺(1♀; VII)
 △*Neoscona nautica* (L. Koch, 1875) 집왕거미 [Cos] 中獅子庵(1♂, 2♀; VII)
 △*Neoscona scylla* (Karsch, 1879) 지이어리왕거미 天皇峰(1♂; VII), 福泉庵(1♂; VII), 南山(2♀; VII), 貯水池(1♀; VII), 法住寺(1♂; VII)
 △*Neoscona scylloides* (Boes. et Str., 1906) 연두어리왕거미 上歡庵(2♀; VII), 貯水池(1♀; VII)
 葛目(1♀; VI)
Nephila clavata L. Koch, 1878 무당거미 [Or.] 上庫庵(1♀; VII), 中獅子庵(1♀; VII), 貯水池(1♂; VII), 法住寺(1♂, 1♀; VII)
Nuctenea cornuta (Clerck, 1758) 기생왕거미 [Hol] 法住寺(1♀; VI)
Pronous minutus (Saito, 1939) 콩왕거미 자라봉(4♀; VI), 新隱瀑洞(2♀; VII)
Singa hamata (Clerck, 1758) 천짜애왕거미 [Pal] 脫骨庵(1♀; V)
 △*Zilla sachalinensis* (Saito, 1934) 북왕거미 天皇峰(1♀; VII), 文藏臺(1♀; VII), 자라봉(1♂, 2♀; VI), 慶業臺(1♀; VII), 新隱瀑洞(2♀; VI), 上歡庵(7♀; VI), 金剛溪(3♀; VII), 福泉洞(2♀; VI), 沐浴沼(1♀; VI), 葛目(1♀; VI)
Theridiosomatidae Vellard, 1924 알망갈거미 과
Theridiosoma epeiroides Boes. et Str., 1906 알망거미 天皇峰(8♀; VII), 上庫庵(3♀; VII), 자라봉(4♀; VI), 新隱瀑洞(3♂♂, 9♀; VI), 上歡庵(3♂♂; VI), 隱瀑洞(1♀; VI)
Tetragnathidae Menge, 1866 갈거미 과
Dyschiriognatha tenera (Karsch, 1879) 애가랑갈거미 福泉庵(1♀; VI)
 △*Leucauge subblanda* Boes. et Str., 1906 꼬마백금거미 新隱瀑洞(3♀; VII), 上歡庵(2♀; VI; 2♀; VII), 隱瀑洞(1♀; VI), 金剛溪(4♀; VII), 福泉庵(2♂♂, 3♀; VI), 沐浴沼(4♀; VII) 南山(2♀; VII), 法住寺(2♀; VII), 葛目(1♂, 1♀; VI)
 △*Leucauge subgemmea* Boes. et Str., 1906 검정백금거미 中獅子庵(2♀; VII), 南山(2♀; VII) 法住寺(5♀; VII)
Menosira ornata Chikuni, 1955 가시다리거미 上歡庵(1♀; VII), 표고밭(1♀; VII), 沐浴沼(4♀; VII)
Tetragnatha caudicula (Karsch, 1879) 꼬리갈거미 貯水池(1♀; VII)
Tetragnatha japonica Boes. et Str., 1906 민갈거미 표고밭(2♀; VII), 金剛溪(2♀; VII)
Tetragnatha lauta Yaginuma, 1959 비단갈거미 上歡庵(2♂♂, 1♀; VI)
Tetragnatha pinicola L. Koch, 1870 백금갈거미 [Pal] 표고밭(2♀; VII), 沐浴沼(1♂; V)
 △*Tetragnatha praedonia* L. Koch, 1878 장수갈거미 福泉庵(1♀; V)
Tetragnatha squamata Karsch, 1879 비늘갈거미 上歡庵(2♂♂, 3♀; VI), 新隱瀑洞(1♂; VI).

- Tetragnatha yesoensis* Saito, 1938 북방갈거미 上歡庵(2♂♂; VII), 福泉庵(3♂♂; VII)
- Uroctidae Thorell, 1869 납거미 과**
- Uroctea limbata* C. Koch, 1843 납거미 法住寺(1♀; VI)
- Agelenidae C. L. Koch, 1837 가게거미 과**
- Agelena difficilis* Fox, 1936 타래풀거미 天皇峰(3♀♀; VII), 慶業臺(2♀♀; VII), 法住寺(1♀; VII)
- Agelena labyrinthica* (Clerck, 1758) 대륙풀거미 [Pal] 上庫庵(2♂♂; VII), 표고밭(1♂; VII), 福泉庵(1♂; VII)
- △*Agelena limbata* Thorell, 1897 들풀거미 [Or.] 上庫庵(3♀♀; VII), 金剛溪(1♀; VII), 南山(1♂; VII), 貯水池(2♀♀; VII)
- Agelena opulenta* L. Koch, 1878 애풀거미 上庫庵(3♀♀; VII), 福泉庵(3♂♂; VII)
- Cicurina japonica* (Simon, 1886) 두더지거미 脫骨庵(1♀; V)
- Cicurina kimyongkii* Paik, 1970 금두더지거미 [K.] 中獅子庵(1♂, 6♀♀; VII), 新隱瀑洞(1♂; VI), 표고밭(2♀♀; V), 脫骨庵(2♀♀; IV)
- Cicurina phaserus* Paik, 1970 콩두더지거미 [K.] 上歡庵(1♀; IV), 沐浴沼(1♂, 6♀♀; V)
- Coelotes bicaudatus* Paik, 1976 오대산가게거미 [K.] 文藏臺(1♀; V)
- Coelotes bifidus* Paik, 1976 민무늬가게거미 [K.] 金剛溪(1♀; VII)
- Coelotes coreanus* Paik et Yaginuma, 1969 고려가게거미 [K.] 표고밭(1♂, 1♀; VII), 沐浴沼(2♀♀; VI)
- Coelotes lunatus* Paik, 1976 속리가게거미 [K.] 新隱瀑洞(1♀; VI), 上歡庵(1♀; IV), 福泉庵(2♀♀; VII), 脫骨庵(1♀; IV), 南山(1♀; VII), 葛目(1♂, 2♀♀; VI)
- △*Coejotes songminjae* Paik et Yaginuma, 1969 민자가게거미 [K.] 표고밭(1♀; V), 沐浴沼(1♀; V)
- Cybaeus mosanensis* Paik et Namkung, 1967 모산굴뚝거미 [K.] 南山(2♀♀; VII)
- Paracoelotes vulgaris* (Paik, 1971) 한국갈매기거미 [K.] 上歡庵(1♂; VI), 金剛溪(2♀♀; VII), 沐浴沼(1♀; VII).
- Tegenaria domestica* (Clerck, 1758) 참집집가게거미 [Cos.] 法住寺(1♀; VII)
- Hahniidae Bertkau, 1878 외줄거미 과**
- Hahnia corticicola* Boes. et Str., 1906 외줄거미 新隱瀑洞(1♀; VI), 표고밭(1♀; V), 福泉庵(1♂, 3♀♀; VI), 沐浴沼(3♂♂, 4♀♀; V), 脫骨庵(2♂♂, IV).
- Neoantistea quelpartensis* Paik, 1958 제주외줄거미 天皇峰(1♂; VII), 자라봉(2♀♀; VI), 福泉庵(3♀♀; IV), 沐浴沼(1♂, 2♀♀; VII), 南山(1♂, 2♀♀; VII), 貯水池(5♀♀; V).
- Pisauridae Simon, 1890 닳거미 과**
- Dolomedes angustivirgatus* Kishida, 1936 가는줄닳거미 法住寺(1♀; VII).
- Dolomedes raptor* Boes. et Str., 1906 먹닳거미 자라봉(2♀♀; VI), 法住寺(1♀; VII)
- Dolomedes sulfureus* L. Koch, 1878 황닳거미 沐浴沼(2♀♀; VI), 南山(2♀♀; VII), 葛目(1♀; VI).
- Pisaure ancora* Paik, 1960 닳표늪서성거미 文藏臺(1♀; VI), 沐浴沼(1♂; VI), 葛目(1♂; VI).
- Pisaura lama* Boes. et Str., 1906 아기늪서성거미 天皇峰(1♀; VII), 葛目(1♂; VI)
- Lycosidae Sundevall, 1833 늑대거미 과**
- Arctosa* sp. 논늑대거미의 1 종 沐浴沼(1♀; V)
- △*Pardosa astrigera* L. Koch, 1878 벌늑대거미 沐浴沼(1♀; VI), 南山(1♂, 1♀; VII), 葛目(1♂, 2♀♀; VI)
- Pardosa laura* Karsch, 1879 가시늑대거미 脫骨庵(1♀; V).
- Pardosa lugubris* (Walckenaer, 1802) 흰표늑대거미 [Pal] 法住寺(1♀; VII)

- Pirata clercki* (Boes. et Str., 1906) 양산적늑대거미 표고밭(1♂; VIII),沐浴沼(2♀♀; VI)
Pirata piraticus (Clerck, 1758) 늑산적거미 [Hol.] 南山(1♂; VIII),貯水池(2♀♀; VIII),葛目(1♀; VI)
Xerolycosa nemoralis (Westring, 1861) 흰줄늑대거미 [Pal.] 脱骨庵(1♀; V)
Oxyopidae Thorell, 1869 스라소니거미 과
 ○*Oxyopes koreanus* Paik, 1969 분스라소니거미 天皇峰(1♀; VIII),法住寺(1♀; VIII)
 ○*Oxyopes parvus* Paik, 1969 아기사라소니거미 法住寺(1♀; VIII),葛目(1♂, 1♀; VI)
Thomisidae Sundevall, 1833 거거미 과
 △*Bassaniana decorata* (Karsch, 1879) 왜곤봉게거미 法住寺(1♀; VIII)
 △*Coriarachne fulvipes* (Karsch, 1879) 꼬마게거미 上歡庵(1♀; VI),葛目(1♀; VI)
 △*Heriaeus mellottei* Simon, 1886 털게거미 法住寺(1♀; VIII),貯水池(1♀; VIII)
 △*Misumenops japonicus* (Boes. et Str., 1906) 각시꽃게거미 法住寺(2♀♀; VIII),葛目(3♂♂, 2♀♀; VI)
 △*Misumenops tricuspidatus* (Fabricius, 1775) 꽃게거미 [Pal.] 金剛溪(1♀; VIII),隱瀑洞(3♀♀; VIII),葛目(2♂♂, 1♀; VI)
 △*Oxytate striatipes* L. Koch, 1878 출연두게거미 자라봉(1♀; VI),上庫庵(1♀; VIII),中獅子庵(2♀♀; VI),上歡庵(1♀; VI)
Philodromus auricomus L. Koch, 1878 금새우게거미 法住寺(1♀; V)
 △*Philodromus cespitum* (Walckenaer, 1802) 흰새우게거미 [Pal.] 南山(1♀; VIII),葛目(1♂; VI)
 △*Philodromus flavidus* Saito, 1934 황새우게거미 葛目(2♀♀; VI)
 ○*Philodromus fuscomarginatus* (De Geer, 1778) 집새우게거미 자라봉(1♀; V),南山(1♀; VIII),葛目(2♂♂; VI)
 ○*Philodromus subaureolus* Boes. et Str., 1906 갈새우게거미 표고밭(1♀; VIII),南山(3♂♂, 1♀; VIII),葛目(10♂♂, 5♀♀; VI)
Pistius undulatus (Karsch, 1879) 오각게거미 [Pal.] 貯水池(1♀; VIII)
 △*Synaema globosum japonicum* Karsch, 1879 불짜게거미 [Pal.] 法住寺(1♀; VIII),貯水池(1♀; VIII),葛目(2♂♂, 2♀♀; VI)
Thanatus miniaceus (Simon, 1880) 중국창게거미 脱骨庵(1♀; VIII),葛目(1♂; VI)
Thomisus labefactus Karsch, 1881 살밭이게거미 法住寺(1♀; VIII)
Tibellus tenellus (L. Koch, 1876) 넉점가재거미 天皇峰(2♀♀; VIII)
 ○*Tmarus koreanus* Paik, 1973 한국범게거미 [K.] 福泉庵(3♂♂; VI),葛目(1♂, 1♀; VI)
 ○*Tmarus rimosus* Paik, 1973 언청이범게거미 法住寺(2♀♀; VIII),葛目(1♂, 1♀; VI)
Xysticus atrimaculatus (Boes. et Str., 1906) 점게거미 沐浴沼(1♀; VIII)
 ○*Xysticus bifidus* Paik, 1973 쌍창게거미 沐浴沼(1♂; VI)
 ○*Xysticus bifurcus* Paik, 1973 쌍삼게거미 [K.] 中獅子庵(1♀; VIII),新隱瀑洞(1♀; VI),沐浴沼(2♀♀; VI),法住寺(1♀; VIII) aik,
Xysticus croceus Fox, 1937 풀게거미 法住寺(1♀; VIII)
 ○*Xysticus ephippiatus* Simon, 1880 中獅子庵(1♀; VIII),葛目(1♀; VI)
 ○*Xysticus saganus* Boes. et Str., 1906 멍게거미 표고밭(1♀; VIII)
Salticidae Blackwall, 1841 강충거미 과
Carrhotus xanthogramma (Latreille, 1819) 털보강충거미 [Pal.] 표고밭(1♀; VI),法住寺(1♀; V),葛目(2♀♀; VI)
Dendryphantas atratus (Karsch, 1881) 까치강충거미 新隱瀑洞(1♂; VIII).
 △*Euophrys frontalis* (Walckenaer, 1802) 검정이마강충거미 上歡庵(1♀; VI),葛目(1♀; VI)

- △ *Evarcha albaria* (L. Koch, 1878) 흰눈썹강충거미 上歡庵(1♀; VIII), 沐浴沼(1♀; V), 葛目(1♀; VI)
- Evarcha flammata* (Clerck, 1758) 흰뺨강충거미 [Pal] 法住寺(1♀; V)
- △ *Icius difficilis* (Boes. et Str., 1906) 눈강충거미 新隱瀑洞(1♀; VIII), 法住寺(1♀; VIII)
- △ *Marpissa dybowskii* (Kulczynski, 1895) 왕강충거미 南山(2♂♂, 1♀; VIII), 葛目(2♀♀; VI)
- △ *Marpissa elongata* (Karsch, 1879) 살깃강충거미 葛目(1♀; VI)
- Marpissa magister* (Karsch, 1879) 수검은강충거미 法住寺(1♀; VIII)
- △ *Myrmarachne japonica* (Karsch, 1879) 불개미거미 南山(2♀♀; VIII), 葛目(1♀; VI)
- ※ *Neon reticulatus* (Blackwall, 1853) 네온강충거미(新稱) [Hol] 沐浴沼(1♂, 1♀; V), 脫骨庵(1♂; IV)
- Phintella abnormis* (Boes. et Str., 1906) 갈색눈강충거미 新隱瀑洞(1♀; VI)
- ⊕ *Phintella parvus* (Wesolowska, 1981) 묘향강충거미 [K.] 표고밭(1♀; V)
- Silerella vittata* (Karsch, 1879) 청띠강충거미 福泉庵(1♀; VI)
- Synagelides agoriformis* Strand in Boes. et Str., 1906 어리개미거미 中獅子庵(2♀♀; VIII), 上歡庵(1♂; VI), 표고밭(4♂♂; V), 沐浴沼(1♂, 2♀♀; VI), 南山(2♀♀; VIII), 葛目(1♀; VI)
- Yaginumaella medvedevi* Prószyński, 1979 흰줄강충거미 上庫庵(2♀♀; VIII), 上歡庵(1♂, 1♀; VI), 福泉庵(1♀; VI), 표고밭(1♀; V) 沐浴沼(1♂, 1♀; VI)
- Clubionidae Wagner, 1888 염낭거미 과**
- Chiracanthium japonicum* Boes. et Str., 1906 애어리염낭거미 法住寺(1♀; VIII)
- Clubiona japonicola* Boes. et Str., 1906 노랑염낭거미 隱瀑洞(1♀; VIII)
- Clubiona jucunda* (Karsch, 1879) 살깃염낭거미 南山(1♂, 2♀♀; VIII), 표고밭(1♂; VIII), 葛目(1♂, 2♀♀; VI)
- Clubiona rostrata* Paik, 1985. 부리염낭거미 [K.] 上歡庵(1♀; VI), 표고밭(1♀; V)
- △ *Itatsina praticola* (Boes. et Str., 1906) 족제비거미 자라봉(1♀; VI), 金剛溪(1♀; VIII), 福泉庵(1♂; VI), 沐浴沼(1♀; VI), 南山(1♂; VIII), 葛目(1♂, 1♀; VI)
- Orthobula crucifera* Boes. et Str., 1906 십자삼지거미 표고밭(1♀; V)
- Phrurolithus pennatus* Yaginuma, 1967 살깃도사거미 中獅子庵(2♀♀; VIII), 표고밭(1♀; VIII), 福泉庵(1♂; VI), 沐浴沼(1♀; VI), 南山(1♀; VIII)
- Trachelas japonicus* Boes. et Str., 1906 땡이거미 貯水池(1♀; VI)
- Anyphaenidae Bertkau, 1892 팔공거미 과**
- △ *Anyphaena pugil* Karsch, 1879 팔공거미 脫骨庵(2♀♀; IV), 葛目(3♂♂, 2♀♀; VI)
- Heteropodidae Thorell, 1873 농발거미 과**
- Heteropoda stellata* Schenkel, 1963 별농발거미 上歡庵(2♀; VI), 沐浴沼(1♀; VIII), 脫骨庵(2♀♀; V).
- *Micrommata roseum* (Clerck, 1758) 이슬거미 [Pal] 貯水地(1♀; VIII), 葛目(1♀; VI)
- Ctenidae Keyserling, 1876 너구리거미 과**
- *Anahita fauna* Karsch, 1879 너구리거미 福泉庵(2♀♀; VI), 표고밭(1♀; V), 沐浴沼(1♂, 2♀♀; VI), 法住寺(1♂; V)
- Zoridae Dahl, 1912 오소리거미 과**
- Zora nemoralis* (Blackwall, 1861) 수풀오소리거미 [Pal] 표고밭(4♀♀; VIII), 福泉庵(1♀; VI), 金剛溪(1♀; VIII), 葛目(2♀♀; VI).
- Gnaphosidae Pocock, 1898 수리거미 과**
- Callilepis schusztleri* (Herman, 1879) 쌍별도끼거미 [Pal] 隱瀑洞(1♂; VI)
- Drassodes oculinotatus* Boes. et Str., 1906 흑갈수리거미 福泉庵(1♀; VI)

- △ *Drassodes pseudopubescens* Schenkel, 1963 금정수리거미 上歡庵(1♀; VI), 葛目(3♂♂; VI).
 ○ *Gnaphosa kompirensis* Boes. et Str., 1906 넓적너거미 中獅子庵(1♀; VII), 포고밭(1♂; V), 沐
 浴沼(2♀♀; VI), 葛目(1♂, 1♀; VI)
Haplodrassus montanus Paik et Sohn, 1984 산새매거미 [K.] 法住寺(1♂, 1♀; V)
Kishidaia albimaculata (Saito, 1934) 넙점박이수리거미 脫骨庵(1♀; VII), 南山(1♀; VII).
Zelotes asiaticus (Boes. et Str., 1906) 아시아염라거미 法住寺(1♂, 2♀♀; V)
Zelotes pallidipatellis (Boes. et Str., 1906) 엑스포염라거미 福泉庵(1♂, 1♀; VI)

Table 1. Synopsis of Spiders of Mt. Songni, Korea

No.	Family	Genus	Sp.	No.	Family	Genus	Sp.
1.	Atypidae	1	1	17.	Tetragnathidae	4	11
2.	Amaurobiidae	2	2	18.	Urocteidae	1	1
3.	Eresidae	1	1	19.	Agelenidae	6	15
4.	Dictynidae	2	2	20.	Hahniidae	2	2
5.	Uloboridae	3	6	21.	Pisauridae	2	5
6.	Leptonetidae	1	1	22.	Lycosidae	4	7
7.	Scytodidae	1	1	23.	Oxyopidae	1	2
8.	Pholcidae	1	4	24.	Thomisidae	13	24
9.	Theridiidae	12	26	25.	Salticidae	13	18
10.	Nesticidae	1	1	26.	Chlbionidae	6	8
11.	Linyphiidae	8	15	27.	Anyphaenidae	1	1
12.	Erigonidae	6	7	28.	Heteropodidae	2	2
13.	Mimetidae	2	3	29.	Ctenidae	1	1
14.	Anapidae	1	1	30.	Zoridae	1	1
15.	Araneidae	16	40	31.	Gnaphosidae	6	8
16.	Theridiosomatidae	1	1				
Total	31 families	122 genera	218 species (include 4 sp. indet.)				

結果 및 考察

俗離山 거미로 31科 122屬 218種(4未確定種 包含)이 確認되었으며, 이는 從前記錄 22科 86種(1未確定種 包含)에 9科 135種(3未確定種 包含)을 追加하는 것이고, 그 科別 種의 組成은 "Table 1"과 같다.

優勢科는 왕거미科(Araneidae, 16屬 40種-13%), 꼬마거미科(Theridiidae, 12屬 26種-12.1%), 게거미科(Thomisidae, 13屬 24種-11.2%), 강충거미科(Salticidae, 13屬 18種-8.4%)의 順이며, 이는 韓國 全体에서의 13%, 9.9%, 10.5%, 10.4%와 近似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접시거미科(Linyphiidae, 15種-7%), 늑대거미科(Lycosidae, 7種-3.3%)等 寒帶性 거미는 調査의 未備에도 있겠지만 매우 弱勢인 便이다.

地理的 分布面에서는 北方大陸系(Pal+Hol.)가 35種-16.4%, 南方海洋系(Oir.)가 5種-2.3%, 汎世界種(Cos.)이 5種-2.3%이고, 大多數가 旧北溫帶系(169種-79%)로 暖帶性이 강한 便이다. 또 韓國固有種에 屬하는 것은 24種-11.2%이며 이는 韓國全体(88種-18.1%)의 27.3%에 該當된다.

地帶別 分布相은 山頂稜線帶(1050m-850m)는 45種-21%, 山中腹帶(850m-700m)는 80種-

37.4%, 山中溪谷帶(700m-600m)는 82種-38.3%, 山麓低山帶(600m-500m)는 92種-43%, 野山平野帶(500m-400m)는 110種-54.4%로, 그 隔差가 緩慢하여 比較的 安定된 棲息環境이 이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俗離山을 模式産地로 하여 記載된 것은 목이유령거미(*Pholcus acutulus* Paik, 1978), 속리유령거미(*Pholcus sokkrisanensis* Paik, 1978), 금두더지거미(*Cicurina kimyongkii* Paik, 1970), 속리가게거미(*Coelotes lunatus* Paik, 1976)의 4種이 있다. 또 점박이사마귀꼬마거미(*Crustulina guttata* (Wider, 1834), 네온강충거미(*Neon reticulatus* (Blackwall, 1853)의 2種은 韓國未記錄이고, 묘향강충거미(*Phintella parvus* (Wesolowska, 1981)는 南韓未記錄種으로 追加되는 것이며 이들에 대한 記載은 따로 할 予定이나 그 標徵은: 1) 점박이사마귀꼬마거미는 2mm内外, 頭胸部에 體長 多數의 短釘狀 突起가 있고, 腹背面正中부에 4개 1列, 兩側面에 2개씩의 白色 大斑点이 있고, 2) 네온강충거미는 體長 2-3mm, 머리 가장자리는 검은나 全体로 黃褐色이며, 腹背面에 多數의 黑褐色 山形橫紋이 配列하고, 암컷 外性器는 올빼미 눈 같이 둥글고 큰 모양을 하고 있다. 3) 묘향강충거미는 體長 4.5mm, 눈강충거미(*Icius diffilis* (Boes. et Str., 1906)에 많이 닮으나 암컷 生殖器의 細部 構造에서 區別된다.

또 未確定種인 *Atypus* sp., *Leptoneta* sp., *Nesticus* sp., 및 *Arctosa* sp. 는 모두 種의 特徵을 지니고 있어 將次 未記錄種이거나 新種으로 記載될 것이다.

参考文献

- 金胃綱, 1985. 솔잎혹파리 被害松林의 節肢動物群集의 構造에 關한 研究. Korean Arachnol., 1(2) Supplement: 1-91.
- 白甲鏞, 1965. 韓國産 접시거미科(Linyphiidae)의 分類學的 研究. 教育研究誌, 慶北大 師大, 3: 58-76
- , 1966. Korean Amaurobidae of Genus *Amaurobius* and *Titanoeca*. Theses coll., Kyung Pook Univ., 10: 53-61
- , 1967. The Mimetidae (Araneae) of Korea. Ibid. II: 185-196.
- , 1969a. The Pisauridae (Araneae) of Korea. Educat. J., Teacher's Coll., Kyung Pook Univ., 10: 28-66.
- , 1969 b. The Oxyopidae (Araneae) of Korea. Theses Coll., Commem. 60th Birthday of Dr. In Suck Yang, 105-129.
- , 1970. Korean Spiders of Genus *Cicurina* (Araneae, Agelenidae). Theses Coll., Kyung Pook Univ., 14: 97-106
- , 1971. Korean Spiders of Genus *Coras* (Araneae, Agelenidae). Korean J. Zool., 14(I): 7-18.
- , 1973 a. Korean Spiders of Genus *Tmanrus* (Araneae, Thomisidae). Theses Coll. Grad. Sch. Educat., Kyung Pook Univ., 4: 79-89.
- , 1973 b. Three new Species of Genus *Xysticus* (Araneae, Thomisidae), Res. Rev. Kyung Pook Univ., 17: 105-116.
- , 1975. 韓國産 참게거미屬(*Xysticus*)의 分類學的 研究. 教育研究誌, 慶北大 師大, 17: 173-186.
- , 1976. Five New Spiders of Genus *Coelotes* (Araneae, Agelenidae), Ibid. 18: 77-88.
- , 1978a. 한국동식물도감, 제21권 동물편(거미류), 1-546. 서울. 삼화서적
- , 1978 b. The Pholcidae (Araneae) of Korea. Educat. J., Kyung Pook Univ., 20: 113-135.
- , 1979. Korean Spiders of the genus *Philodromus* (Araneae: Thomisidae). Res. Rev. Kyung Pook Nat. Univ., 28: 421-452
- Wesolowska, W., 1981. Salticidae (Araneae) from North Korea, China and Mongolia, Ann. Zool. Warszawa, 36(3) 45-83.

〈綜說〉

植物命名의 來歷과 規約의 概要

鄭 英 昊

서울大 植物学科 教授

자연의 식물계에 既存하거나 새롭게 발견되는 分類群(taxon), 혹은 교잡, 육종, 배양 등을 통하여 형성된 식물 개체의 명칭은 命名에 의하여 설정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植物名들 중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상용명칭인 俗名과 학술명칭인 學名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俗名과 달리 學名の 설정은 命名에 갖추어야 할 제반 필요사항을 수반하여야 하고 命名規約의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렇듯 學名の 命名에 있어 法典이라 할 수 있는 植物命名規約의 發達史는 Linne의 二名法과 Paris Code(1867)를 중심으로 세 時期로 나누어 개괄할 수 있다.

1) 始初의 命名(고대~1753년)

인간이 식물에 명칭을 주는 命名의 시작은 인류의 문명이 기록으로 정리되는 역사시대 부터라고 볼 수 있으며, 당시의 命名은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먼저 주 거지 주위의 식물들 중 식용식물, 약용식물, 기호식물 등이 우선적으로 命名되어 졌다.

이렇게 주변식물에 한하여 이용 목적이 우선이던 命名은 자연의 점진적인 개척과 더불어 급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植物名の 증가는 유사한 식물 개체가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명칭의 설정을 위한, 命名體系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결과, 각 식물 개체의 식별형질들을 세개 내지 그 이상 나열한 多名(Polynomial; ex *Salix pumila angustifolia altera*)이 실용화 되었다.

命名法の 발달에 있어 多名法の 출현은 식물의 命名에 일관성을 갖게 한 의의는 있으나 다수의 유사한 植物群이 발견됨에 따라 명칭은 길어지게 되었고 이는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좀 더 간결한 命名體系를 태동시키는 근원이 되었다.

2) 命名規約의 定立期(1753~1866년)

이 時期에는 中世의 復古風의 學問潮流의 영향과 당시 대개의 식물학 公表物에서 라틴語를 사용하던 것이 관습화되어 고대 회랍이나 로마시대의 대부분 常用名稱들은 그 綴字가 라틴語化 되었고 이는 學名이 라틴語化 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편, Linne는 以前 命名체계의 폐단을 인식하고 그에 앞서 Rivinus에 의해 사용된 바 있는 二名法을 그의 저서인 *Species Plantarum*(1753)에 채택하여 식물 명칭들을 二名(Binomial; ex *Quercus alba*)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그는 *Genera Plantarum*과 *Hortus Cliffortianus*에 적용한 바 있는 命名의 規則을 *Critica botanica*(1737)와 *Fundamenta botanica*(1736)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Linne의 二名法은 그 유용성과 편리함이 인정되어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命名體系의 이용은 기존의 식물 명과 더불어 한 分類群에 여러 명칭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이 파생되었고, 이는 결국 복잡한 異名表(Synonymy)를 낳았으며 식물명칭의 적용에는 우선권을 고려하게 하였다.

命名體系上에 있어서 이러한 큰 변혁은 현

대적 의미의 공식적인 命名法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이후, 1813년 Augustin de Candolle은 그의 저서 *Theorie Elementaire de la Botanique*에서 Linne의 命名法에 대하여 보다 확실한 설명을 첨가하였다. 이어 1821년 E. G. Steudel은 현화식물명칭의 색인인 *Nomenclator botanicus*에 당시까지 알려져 기록된 모든 현화식물명칭과 그 異名을 라틴名으로 정리하였는데 이 저서는 올바른 명칭 적용에 대한 유용한 것으로 후일 *Index Kewensis*의 전위 구실을 하였다.

이 時期는 命名体系上 커다란 도약을 이루었지만 많은 植物學 公表物, 著書, 國家 심지어는 학파에 따라 그들 나름대로의 기본원리와 규칙을 규정하고 이에 준하였으므로 命名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단일하게 成文化한 命名法 확립의 필요성을 낳게 되었다.

3) 命名規約의 制定, 補完(1867~현재)

1866년, A. de Candolle이 런던에서 다른 여러 식물학자들의 도움을 얻어 命名法上 최초인 명명규약 초안을 만들어 이듬해인 1867년 8월 16일, 파리에서 열린 제 1차 국제 식물학회에 상정하여 회의에 참석한 150餘名の 유럽과 미국학자들에 의해서 명실공히 최초의 식물명명규약으로 채택되었다. 이것이 바로 de Candolle Rules, 혹은 *Lois de la Nomenclature botanique*라 불리우는 Paris Code(1867)이다. 그러나 이規約도 1800년대 후반에 들어서자 영국의 Kew植物園, 독일의 베를린植物園, 미국의 뉴욕植物園 등에 소속된 많은 식물학자들 사이에 수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Kew식물원 소속의 식물학자를 중심으로 한 일부에서는 Kew rules을 만들어 실제로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미국에서는 뉴욕 식물원의 N.

L. Britton을 중심으로 하여 1892년 A. A. S(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의 Botanical Club에서 Rochester Code(1892)를 제정하였다. 이 Rochester Code와 Paris Code의 차이점은 ①명칭의 정확한 적용에 있어서 基準型(type)의 개념, ②優先權 原則의 정확한 적용, ③反復名表(tautonymy)의 인정, ④優先權 原則에 公表日字와 동일한 公表에서 名稱의 先取權을 포함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規約의 난립은 1892년의 제 2차 국제식물학회에서 命名規約上 특기할 만한 진전을 낳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각국의 식물학자들은 1900년 파리에 모여서 命名規約의 전반에 걸친 案件을 준비하여 1905년 비엔나에서 열린 제 3차 국제식물학회에 상정하였다. 논의 결과 Paris Code(1867)를 근간으로 하고 Rochester Code(1892)로 보완하여 Vienna Code(1905)가 제정되었다. Vienna Code에서는 管束植物의 命名 始發日이 Linne의 *Species Plantarum*(1753)으로 되었고, 保存屬名(Nomina generica conservanda)와 反復名表의 폐기, 명칭의 優先權은 公表日字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변동 사항이 있었다.

또한, Rochester Code의 지지자들은 Vienna Code에 그들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자, Rochester Code를 보완하여 American Code(1907)를 제정하였다. 이는 후일 B. S. A. (Botanical Society of America)의 命名委員會에서 Type-Basis Code(1918)로 발전되었으나 사용되지는 않았다.

1907년에도 국제식물학회의는 개최되기는 했으나 원칙적으로 5년 마다 열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제 4차는 1910년, 브루셀에서 열려 非管束植物의 命名 始發日을 설정하였고 基準型의 개념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어 1915년에는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열릴 수 없었고, 1926년에는 뉴욕에서 개최되

었으나 뚜렷한 성과 없이 次期 會議의 案件만을 준비하였다.

1930년,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는 유럽대륙과 영국의 대표인 T. A. Sprague와 M. L. Green, 그리고 American Code를 지지하는 미국의 대표인 A. S. Hitchcock의 합심한 노력 끝에 Vienna Code와 American Code의 많은 이견을 해소(즉, 反復名을 인정하지 않음, 1732년 1월1일 이후부터는 Bacteria를 제외한 모든 새로운 植物의 表徵은 반드시 라틴語로 記載해야함, *Nomia generica conservanda*의 인정 등) 하였고, 그 결과 American Code는 폐지되었다. 命名規約은 이러한 대폭적인 수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國際植物命名規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제6차 회의는 네덜란드의 암스텔담에서 열려 Cambrige Code의 保存屬名에 顯花植物과 羊齒植物의 保存屬을 포함시켰으며 체제도 規則을 章, 節, 條, 勸告로 세분하고 條項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며, 勸告는 指針으로 하였다. 規則의 뒤에는 基準標本 設定, 保存名의 分類된 目錄, 栽培植物의 命名에 대한 지시 사항 등의 附錄을 첨부하였다.

1940년과 1945년에는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회의는 열리지 못하였고, 1950년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7차 회의에서는 Amsterdam Code의 再整備과 사소한 보완이 있었고, 특히 分類學的의 '群'에 대해서는 *taxon* (pl. *taxa*)이라는 술어를, 그리고 雜種의 名稱에는 *nothomorph*를 새롭게 적용하였다.

제8차 회의는 프랑스식물학회의 100주년인 1954년, 파리에서 열렸으며 이 Paris Code(1954)는 第Ⅰ部 原理, 第Ⅱ部 規則과 勸告, 第Ⅲ部 附錄 등으로 구성되어 Stockholm Code와 커다란 차이는 없다.

命名規約 중 栽培植物의 命名法은 1958년, 프랑스의 니스에서 열린 國際園藝植物學會에

서 제정되었으며 이때부터 栽培變品種의 命名은 *cultivar* 밑에 쓰도록 되었으며 優先權의 原則은 植物命名規約과 동일하게 규정되었다.

제9차 회의는 1959년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열려 規約의 정확성과 치밀성에 관련된 다수의 案件을 처리하였고, 1964년, 영국의 에딘버그에서 열린 제10차 회의에서는 명칭 자체의 안정성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을 뿐, 規約上의 큰 변동 사항은 없었다.

제11차 회의는 1969년, 미국의 시애틀에서 열려 屬과 種 사이 혹은 種과 種 以下 分類群 사이의 分類群들의 反復名性 稱号, 여분의 名稱, 雜種을 위한 規則의 재정리 등이 논의되어 여러 해결안이 채택되었다.

제12차 회의는 1975년, 소련의 레닌그라드에서 열려 Seattle Code(1969)의 第69, 70, 71條와 科보다 높은 分類群 名稱의 地位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第70條,

[名稱은 2개 혹은 그 이상의 不一致하는 構成要素로 구성된 基準型에 근거한다면 폐기된다. 단, 그 구성요소 중 하나가 만족할 수 있는 基準型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와 第71條,

[名稱이 畸形에 근거를 둔다면 이는 폐기된다.]

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제13차 회의는 1981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에서 개최되었는데 命名規約上의 변경은, 체제에 있어서, 條文과 勸告는 段落記番되었고 例示에는 自說式的 記番體系를 이용하였다. Sydney Code(1981)는 Leningrad Code에 비해 約 100餘件의 더 많은 提案들이 승인되었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에 조회되었지만 주요한 것은 種名의 保存을 인정한 것과 Leningrad Code(1975)의 第74條,

[屬名의 綴字가 Linné의 Species Plantarum 1판과 Genera Plantarum 5판에서

다르다면, 올바른 철자는 다음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

① 만약 Linne가 1753~54년 후에 그 철자 중 하나를 계속해서 채택하였다면, 그 철자는 인정된다.

② Linne가 ①項과 같이 채택하지 않았다면, 어원학적으로 좀 더 올바른 철자를 인정한다.

③ 두 철자가 모두 어원학적으로 동등하게 올바르다면, 그들 중 널리 이용되는 것을 인정한다.]

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Sydney Code의 雜種에 관한 規定에서는 雜種起原의 分類群을 의미하는 *nothotaxon*이라는 술어를 채택하였다.

이렇듯,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제정된 Sydney Code는 그 구성이 前文과 3개의 部로 되어 있는데 第Ⅰ部는 規約의 설정에 있어 근본이 되는 原理(I~VI)로서 다음과 같다.

原理 I, 植物 命名法은 動物 命名法에 대하여 독립적이다. 本 規約은 원래 植物群으로 취급되었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植物로 취급되는 分類學的 群의 名稱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原理 II, 分類學的 群의 名稱 適用은 命名基準型에 準하여 決定한다.

原理 III, 分類學的 群의 命名은 公表의 優先權에 근거를 둔다.

原理 IV, 특정한 限界, 地位, 階級을 갖는 각 分類學的 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規約에 따라서 가장 먼저 命名된 단 하나의 正名을 갖는다.

原理 V, 分類學的 群의 學名은 그 由來에 관계없이 라틴語, 또는 라틴語화한다.

原理 VI, 命名法의 規則은 명확히 制限되지 않는 한 遡及 効力이 있다.

第Ⅱ部는 規約의 주요 부분으로 規則과 勸告(第1~75條)로 規定되어 있다. 즉,

第Ⅱ部 規約과 勸告(제1~15조)

第Ⅰ章 分類群들의 階級과 그들을 나타내는 술어(제1~5조)

第Ⅱ章 分類群들의 名稱(제6~15조)

第1節 定義(제6조)

第2節 基準標本 設定(제7~10조)

第3節 優先權(제11~12조)

第4節 優先權 原理의 制限(제13~15조)

第Ⅲ章 階級에 따른 分類群들의 命名(제16~28조)

第1節 科보다 높은 分類群의 名稱(제16~17조)

第2節 科, 亞科, 族, 亞族의 名稱(제18~19조)

第3節 屬과 屬의 細分群의 名稱(제20~22조)

第4節 種의 名稱(제23조)

第5節 種보다 낮은 分類群의 名稱(제24~27조)

第6節 栽培植物의 名稱(제28조)

第Ⅳ章 有効 公表와 正當 公表(제29~50조)

第1節 有効 公表의 條件과 日字(제29~31조)

第2節 名稱의 正當 公表의 條件과 日字(제32~45조)

第3節 正確성을 目的으로 하는 文獻과 命名者의 引用(제46~50조)

第4節 引用에 관한 일반적인 勸告(勸告 50A~F)

第Ⅴ章 名稱과 小名の 保有, 選擇, 廢棄(제51~72조)

第1節 分類群이 修正, 또는 分離될 때 小名の 保有(제51~53조)

第2節 屬보다 낮은 階級인 分類群들의 小名이 다른 種, 또는 屬으로 옮겨질 때의 保有(제54~56조)

第3節 동일한 階級の 分類群들이 併
합될 때 名稱의 選擇(제57-58
조)

第4節 多形的 生活環을 가진 菌類의
名稱(제59조)

第5節 分類群의 階級이 변경되었을
때 名稱의 選擇(제62~72조)

第6節 名稱과 小名の 廢棄(제62~72
조)

第Ⅵ章 名稱과 小名の 正字法, 그리고
屬名の 性(제73~75조)

第1節 名稱과 小名の 正字法(제73~
75조)

第2節 屬名の 性(권고75A~B)

第Ⅲ部는 規約의 修正에 관한 條項들로 구
성되어 있으며, 規約의 끝 부분에는 雜種名
稱의 설정과 적용에 관한 附錄Ⅰ, 保存되어
야 할 科名の 目錄인 附錄Ⅱ(*Nomina famili-*
arum conservanda), 保存되어야 할 屬名과
廢棄되어야 할 屬名들의 目錄인 附錄Ⅲ(*No-*
mina generica conservanda et rejicienda),

Bromus purgans Linnaeus, Sp. pl. 76.
1753[GRAM.]

LT: *P. kalm* s. n. (LINN 93. 11) (vde
Hitchcok, Contr. U. S. Natl. Herb. 12: 122.
1908)
을 유일하게 廢棄시킨 附錄Ⅳ(*Nomina utique*
rejicienda 등이 있어 規約을 보완하고 있
다.

한편, Sydney Code에는 基準型의 決定을
위한 指針을 附錄 뒤에 기술하여 基準型의 설
정과 그 활용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해설하면,

科나 그 이하의 分類群 名稱의 적용은 “命
名 基準型(分類群 名稱의 基準型)”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上位階級에서 分類群 名稱의
적용은 그 名稱이 궁극적으로 근거를 둔 屬
名の 基準型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때 命名
基準型(*typus*) 이라 함은 分類群의 名稱이 正

名(Correct name) 혹은 異名이든 간에 그 名
稱에 영구히 결부된 구성요소를 의미하며 이
것은 반드시 分類群의 가장 전형적이거나 대
표적인 요소는 될 수 없다.

基準型을 결정할 때, 原命名者의 選擇은
分類群 名稱의 原公表時에 명확히 표현되었
다면 최종 결정이 되며 그 命名者가 한 구성
요소만을 선택하였다면 이는 항상 正基準
標本(*holotypus*)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즉
正基準標本은 命名者에 의해서 命名 基準型
으로 사용되었거나 지정된 標本이나 다른 구
성요소이다. 正基準標本이 현존하는 한 그에
달린 名稱의 적용은 正基準標本에 의해서 자
동적으로 결정된다. 만약 새로운 名稱이 그
分類群보다 빨리 公表된 記載에 근거를 둔다
면 命名者에 의하여 引用된 재료가 正基準標
本이 된다.

正基準標本이 分類群을 記載한 命名者에
의해서 지정되지 않았거나, 正基準標本 혹은
下位階級の 種이나 分類群에서 그 基準型이
遺失되었거나 파괴되었을 때에 限하여 選定
基準標本(*lectotypus*)이 선택 될 수 있으며
命名 基準型으로 이용되기 위하여 원래의 材
料로부터 선택된 標本 또는 다른 구성요소
이어야 한다. 이때 두개 이상의 標本이 命名
者에 의해서 種名 또는 種內名(즉 雌와 雄,
開花와 結實 등)의 基準型으로 지정되었다면
選定基準標本은 그들 중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이렇듯 選定基準標本の 설정은 관련群을 충
분히 이해한 경우에만 착수되어야 하며, 선
택할 때에는 原記述(*protologue*)의 모든 사
항은 기본적인 指針으로서 간주되어야 할 것
이다. 임의 種을 命名한 후에 채집된 標本의
自動選擇, 引用된 최초의 種이나 標本의 自
動選擇같은 機械的인 方法들은 非科學的이고
미래에 혼란과 변화를 초래할 것이므로 피하
는 것이 좋다.

결국, 選定基準標本은 分類群 名稱이 公表

될 때까지 命名者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연구된 구성요소 중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이렇게 선택된 標本은 種名이나 種內 分類 名稱이 설정될 때에 있어서 Linne 이전의 記載나 圖解, 혹은 다른 인용된 記載나 圖解에 대하여 先取權을 갖는다.

正基準標本이 原命名者에 의해서 설정되었었는데 遺失 혹은 파괴되었고 同基準標本(isotypus)이 존재한다면 이는 選定基準標本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여기서 同基準標本은 항상 하나의 標本으로 正基準標本の 副標本* (正基準標本과 동시에 채집자에 의해서 채집된 단일 채집물 중 하나)을 의미한다. 原命名者에 의해서 지정된 正基準標本이 없고 等價基準標本(Syntypus)이 존재한다면 이들 중 하나를 選定基準標本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여기서 等價基準標本은 지정된 正基準標本이 없을 때 命名者에 의해서 인용된 두 개 이상의 標本 중 하나이거나 혹은 동시에 基準型으로 설정된 두 개 이상의 標本 중 하나를 의미한다.

原命名者에 의해서 설정된 正基準標本이 없고, 等價基準標本도 현존하지 않으나 選定基準標本(同等價基準標本 ; isosyntypus)의 副標本 중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同基準標本, 等價基準標本이나 同等價基準標本 모두가 없고 準基準標本(paratypus)**이 존재한다면 이를 選定基準標本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選定基準標本을 선택할 경우에 있어서 名稱의 命名者에 의해서 의도된 表示는 이러한 表示가 原記述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先取

權을 갖게 된다. 이러한 表示는 *typicus, genuinus, vulgaris, communis* 같은 小名, 인식할 수 있는 숫자, 標本臺紙에 대한 註釋, 原稿의 註 등이 해당된다.

둘 혹은 그 이상의 이질적인 구성요소가 原記述에 포함되어 있거나 인용되었을 경우에, 현행 용례를 보호하기 위하여 選定基準標本이 선택되어야 한다. 특히 또 다른 命名者가 다른 分類群으로 이미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구성요소를 분리하였고 이 구성요소가 原記述나 表徵과 일치한다면, 그것의 부분이나 나머지는 選定基準標本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선택된 구성요소가 原記述과 不一致하는 면을 보여주면, 이전에 분리된 구성요소 중 하나를 選定基準標本으로 선택한다.

選定基準標本の 최초 선택은, 正基準標本이 再發見되지 않거나 그 선택이 原記述과 일치하고 機械的인 方法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후일의 設定者도 이에 따라야 한다.

新基準標本(neotypus)은 원래 인용된 재료나 혹은 引用은 되지 않았지만 命名者가 보았던 재료, 그리고 그의 副標本이 파괴되었거나 혹은 遺失되었을 때에 限하여 설정할 수 있다. 즉, 新基準標本은 原材料가 아닌 어떤 재료로부터도 선택될 수 있다.

新基準標本을 선택할 경우, 原記述에 가장 적합한 것에 대하여 재검토자는 그 자신의 판단을 제외한 어떠한 指針도 가지지 않으므로, 특별한 주의와 비판적 지식은 필수적이다. 만약, 그의 선택이 오류로 판명이 되면 필연적으로 보다 더 많은 변경을 초래할 것이다.

新基準標本の 최초 선택은 原材料 중 어느

* 副標本(duplicate)라는 어휘는 일반적으로 표본관의 관리업무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채집자에 의하여 동시에 채집된 단 하나의 채집물 중 일부를 지칭한다.

** 準基準標本(paratypus)은 正基準標本, 同基準標本, 等價基準標本과 다른 原記述에서 引用된 標本이다. 正基準標本이 설정되지

않는 대개의 경우에서, 引用된 標本은 모두 等價基準標本일 것이기 때문에 準基準標本은 없다. 그러나 命名者가 둘 혹은 그 이상의 標本을 基準型으로 인용하는 경우, 남아 있는 인용된 標本은 等價基準標本이 아니라 準基準標本이다.

것도 재발견되지 않고, 적법한 新基準標本이 채택되지 않았으며, 그 선택이 原記述과 불일치하는 것을 보일 경우가 아닌 한 후일의 設定者도 이에 따라야 한다.

選定基準標本은 新基準標本에 대해서 항상 先取權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오래된 名稱에 대한 新代理名(*nomen novum*)으로 公表된 새로운 名稱은 그 오래된 名稱의 基準型에 의하여 基準化되고 이전에 公表된 合法名으로부터 설정된 새로운 名稱(Stat. nov., Comb. nov.)은 어떠한 경우에도 原名의 基準型에 의하여 基準化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公表 當時 命名法上 여분의 名稱은 이 名稱의 命名者가 다른 基準型을 제시하지 않는 한, 規則에 準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名稱의 基準型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基準化된다.

1953년 이후를 命名 始點으로 갖는 임의 群에 부여된 分類群 名稱의 基準型은 記載나 表示 그리고 다른 正當 公表된 材料에 準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正當 公表가 命名 始發日以前의 記載를 참조할 경우 그 記載는 새롭게 公表된 것처럼 基準標本 設定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化石植物의 基準型 設定에서는 種 또는 그 이하 階級으로 化石植物인 分類群 名稱의 基準型은 圖面이 수반된 標本이거나 혹은 名稱의 正當 公表에서 인용된 標本이다. 이 때 하나의 標本 이상의 圖面들이 해당 名稱이 正當 公表될 때에 제시 되었거나, 인용 되었다면 그들 標本 중의 하나가 基準標本으로 선택되어야 하는데, 이는 植物化石의 形狀 屬(*forma-genera*), 菌類의 無性形(anamorph)등도 동일하다. 이렇듯 化石植物의 한 分類群을 설정하는데 이용된 하나의 완전한 標本은 命名 基準型으로 간주되며 이 標本이 斷片(化石木의 일부분, 石炭塊, 植物의 부분 등)으로 되어 있으면, 表徵의 설정에 이용된 모든 부분은 명확하게 表示되어야 한다.

多形的 菌類(Pleomorphic fungi)의 基準標本 設定은 有性形(teleomorph) 뿐만 아니라, 無性形도 포함하는 完全形(holomorph)으로 하여야 하고 특히, *Species Plantarum* (1753), *Synopsis Methodia Fungorum* (1801), *Systema Mycologicum* (1821), *Elenchus Fungorum* (1821) 등 菌類의 命名 始發日이 되는 저서 중 하나에 채택되어 인가된 名稱은 그러한 저서 내의 名稱에 연관된 모든 사항에 근거를 두어 설정한다.

種의 名稱이나 種內 分類群의 名稱의 基準型(正基準標本, 選定基準標本 또는 新基準標本)은 다음의 예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하나의 標本이거나 혹은 다른 구성요소이어야 한다; 작은 草本植物과 대부분의 非維管束植物에서 처음에 基準型이 두 개체 이상인 경우 하나의 標本臺紙 위나 또는 이와 동등한 容器(즉, 상자, 표본철, 병, 현미경 슬라이드)속에 영구히 保存되어야 한다. 만약 하나의 分類群 이상에 속한 부분이 포함된 基準標本 臺紙나 容器가 후일에 밝혀지면 名稱은 原記述과 가장 잘 일치하는 부분(選定基準標本)에 결부시켜 존속시켜야 한다. 그리고 種 또는 種內 分類群 名稱의 基準型으로서 標本の 保存이 불가능하거나 그러한 名稱에 基準標本이 없다면, 基準型은 記載하거나 圖面化할 수 있다.

分類群의 名稱이 근거를 두고 있는 재료 중 특히, 正基準標本은 영구적이고 책임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철저히 보관하여야 하나, 培養體나 生體植物로서는 保存할 수 없다. 하지만 새롭게 記載된 藻類나 菌類의 名稱에 대한 正基準標本物은 基準培養體 保存機關에 저장될 수 있다.

屬의 名稱이나 屬의 細分群 名稱 *** 의

*** Sydney Code에서와 여기에서도 '屬의 細分群'은 階級上, 種과 屬 사이의 分類群들에만 적용된다.

基準型은 種의 基準型인데 이는 基準型的의 引用이나 設定에는 種名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즉, 種名은 基準型和 완벽한 同等物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屬의 名稱이나 屬의 細分群 名稱의 原記述에 하나 혹은 그 이상 種名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면 基準型은 이들 名稱의 基準型 중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種名에 대한 언급이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여 선택해야 한다. 保存이 된다면, 屬名

의 基準型은 이 屬에 포함된 種名의 基準型과는 다르지만 命名者가 原記述할 때 사용한 하나의 標本이 될 수 있다.

科의 名稱이나 科의 細分群 名稱****의 基準型은 그것이 근거를 둔 屬名의 基準型和 동일하다. □

**** Sydney Code에서와 여기에서도 '科의 細分群'은 階級上, 屬과 科 사이의 分類群에만 적용된다.

여러분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자연보존”은 自然의 保存에 관한 知識의 보급을 目的으로 發刊되고 있습니다.

本誌를 통하여 여러분이 本協會 사업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原稿를 모집하오니 수시로 좋은 原稿를 많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原稿의 種類

自然保存을 위한 提言, 論說, 資料, 論文 및 기타

2. 投稿 要領

- ① 論文은 國文으로 하되 英文要約을 붙일 것.
- ② 原稿에 漢字를 쓸 경우에는 200字 1枚當 5單語 以內를 原則으로 할 것.
- ③ 原稿의 分量은 200字 原稿紙 60枚(插圖 및 圖表 包含)를 超過하지 못함.
- ④ 原稿의 題目, 著者名, 所屬機關名 등은 國文과 英文을 併記하여야 함.
- ⑤ 原稿에서 學名(屬名과 種名)은 붉은 밑 선으로 表示할 것.
- ⑥ 圖 및 表는 별도로 良質紙에 製作하고 插入할 位置에는 說明文을 記入하여야 함.
- ⑦ 引用文獻의 記入順은 著者名의 알파벳順

으로 하고, 아래의 例에 따라 적을 것.

例, Red, G.K., 1976. Ecology of inland waters and estuaries. p. 485. D. Van Nostrand Co., New York.

김○○, 1979. 한국산 회귀 및 위기 동식물의 보존에 관한연구. 한국자연보존협회 연구 보고서 1: 11-109.

3. 原稿의 採擇

接受된 原稿의 게재 여부는 本協會編輯委員會에서 審査 決定하며 게재된 原稿에 대하여는 소정의 稿料를 드립니다.

4. 原稿 送付處

131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淸涼里 우체국 사서함 185호 韓國自然保存協會 編輯委員會 앞.

編輯委員會 委員

委員長	金熏洙	서울大學校 動物學 教授 理學博士
委 員	尹一炳	고려大學校 昆虫學 教授 理學博士
委 員	李相龍	內務部 自然保護擔當官
委 員	任綱彬	서울大學校 植物學 教授 農學博士
委 員	鄭英昊	서울大學校 植物學 教授 理學博士

◆ 表紙說明 ◆

얼레지

Erythronium japonicum Decaisne

추운 겨울동안 뽕뽕 얼었던 골짜기의 얼음이 채 녹기도 전에 양지바른 곳에는 버들강아지, 제비꽃, 피나물, 복수초, 등이 고개를 들어 봄을 알리는 꽃을 활짝 피운다. 이때 시새워 함께 파는 것이 얼레지이다. 인적이 드문 심산 양지쪽에 피는 얼레지는 잎이 밑에 깔려 얼룩얼룩한 자문(紫紋)을 가지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꽃의 모양이 별모양으로 생겨서 고개를 가우뚱하여 자색 꽃을 피운다. 이들이 군집을 이뤄 필 때에는 분홍 자색의 별꽃이 온통 땅 위를 뒤덮어서 장관을 이룬다. 4월 초에서 5월에 이르기까지 살다가 초여름이 되면 지상부는 죽는다. 새로운 잎은 고급 나물로 이용되며 땅속 깊이(약 30cm)새하얀 뿌리는 가제 모양을 닮아서 지방에 따라서는 가제무릇이란 이름으로도 불리운다. 뿌리는 순 녹말로 형성되어 있어서 전분원료·제약원료로 많이 이용된다(京畿道 光陵 숲에서).

글·사진: 趙武衍 (林業試驗場 研究官)

CONTENTS

Future in nature conservation of Korea

Past and present of nature conservation Kang, Yung Sun..... 1

The achievements and the points at issue in nature conservation movement
..... Kim, Hoon Soo..... 5

Natur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in Korea

— Present status and task— Won, Pyong-Oh..... 11

Ethical view for the nature Kim, Choon Min 20

A proper guidance for youth by the education of nature conservation
..... Choi, Ki-Chul 25

The Spider Fauna of Mt. Songni, Poŭn-gun, Ch'ungch'ongbuk-do, Korea

..... Namkung, Joon 30

Commentary on the Code of Botanical Nomenclature Chung, Yung Ho 41

韓國自然保存協會는 우리나라 自然의 保存을 위한 研究와 이에 관한 知識의 보급을 통하여 自然保護精神을 함양하며, 國民의 生存과 國家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3년 12월에 創立된 社團法人체이다. 本 協會에서는 위의 設立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事業의 一環으로 자연보존과 學術報告書를 發刊하고 있다.

目 次

□ 特輯：우리나라 自然保存의 過去와 未來	
■ “自然保存”20餘年 / 姜永善	1
■ 自然保護 運動의 實績과 問題點 / 金熏洙	5
■ 自然의 保護와 管理－現 實態와 當面課題 / 元炳昨	11
■ 自然에 대한 倫理觀 定立 / 金遵敏	20
■ 靑少年問題와 自然教育 / 崔基哲	25
□ 報恩·俗離山의 거미相 / 南宮燦	30
□ 植物命名의 來歷과 規約의 概要 / 鄭英昊	41

자연보존 第53號 〈季刊〉 非賣品

1986年 4月 10日 印刷
1986年 4月 20日 發行

發行 兼 編輯人 姜 永 善
印刷人 宋 世 暢

發行處 社團法人 韓·國 自 然 保 存 協 會
①③① 서울特別市東大門區清涼里洞山1
林業試驗場內 962-2894
서울清涼郵遞局私書函 185

登録番號 마-520號 登録日字 1975. 8. 26. 印刷處 天 佑 商 社

Nature Conservation No. 53, March 1986.

Published by: The Korean Associat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Seoul 131, Korea.